

코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을 하나님께서 주
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뤄지는 역사
가 일어나기를 간구합니다. 모든 크리스
천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게
해주셔서 이 미국이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결실을 인도
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gmail.com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gmail.com

www.chpress.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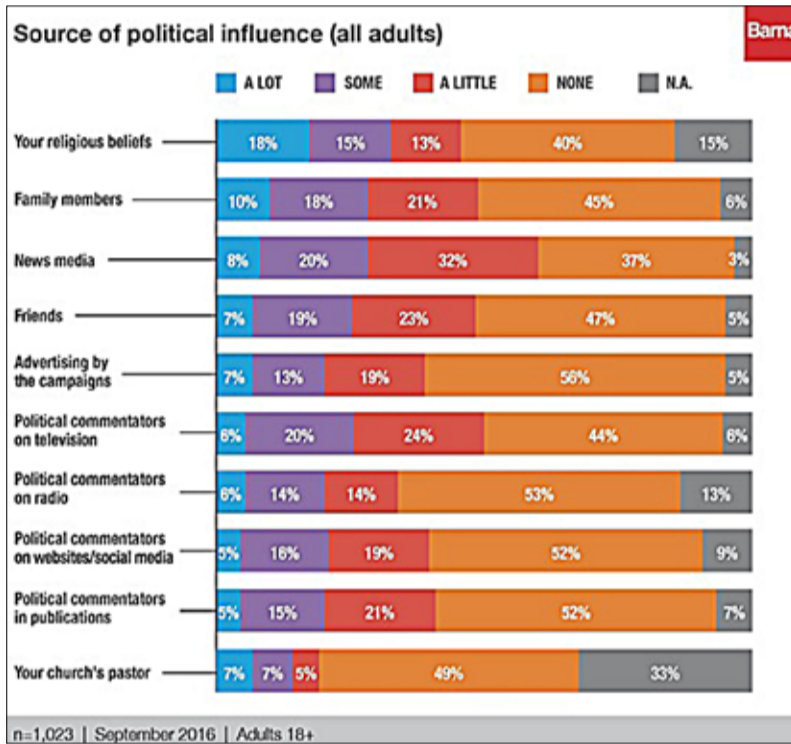
주후 2016년 11월 5일 (토) 제 1608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내 신앙에 따라 소중한 한 표 행사한다!

바나리서치, “복음주의적 유권자들, 종교적 신념에 따른 선택하겠다” 설문 결과 발표

대통령을 선출하는 11월 8일이 눈앞에 다가왔다.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투표한다. 수입이 많은 사람들은 세무혜택을 잘해주는 공화당후보를, 약소민족과 이민들은 사회복지혜택에 더 중점을 두는 민주당후보를 선택한다. 인종, 성별, 종교와 같은 배경이 후보선택에 작용하는 경우도 많다. 여성이 대통령 되기에는 시기상조라든지 또는 유대교 신자는 믿지 못할 사람이라는 등의 편견이 영향을 준다. 후보의 인격과 지도력에 대해서는 별로 알리고 하지 않으며 주위의 소문과 자기편견에 기초해 후보를 선택한다. 자기가 소속한 정당이 선출한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다. 가족의 전통 또는 개인의 신념에 따라

오랫동안 한 정당에 소속한 충성스러운 정당인들은 정당의 후보를 어떤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서는 자기의 종교와 도덕적 신념에 따라 후보선택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세간의 언론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별로 취급하지 않고 있지만, 종교와 정치관계에 대한 이슈는 점차 핵심적 이슈다. ‘바나리서치’는 교회에 다니는 미국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지만, 이번 대선에서는 반드시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투표하겠다는 사람들이 많다는 설문 결과를 내놓았다(Religious Beliefs Have Greatest Influence on Voting Decisions).



미국성인 정치 성향(바나리서치)

적 신념으로 정치적 행위를 결정하는 비율을 높인다. 복음주의자 중 75%가 자신들의 신앙이 행위를 결정한다고 응답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복음주의

자는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의 목회자에게서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응답한다(22%). 그리고 가족들에게서는 21%... (3면으로 계속)

“작은 일에 충성” ...신임회장 김홍석 목사

뉴욕교협 제 42회 정기총회, 부회장 이만호 목사

뉴욕교협 제 42회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에 김홍석 목사, 부회장에 이만호 목사가 선출됐다. 신임 회장 김홍석 목사는 “소의 되고 힘든 목회자들과 교회를 도우며 작은 일에 충성하겠다”며, “특히 내년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교회나 교계적으로 개혁해야 할 부분이 많은데, 이때에 교령회장이 된 것을 시대적 사명으로 알고 미국에 청교도 신앙이 회복되고 미국 복음화의 초석이 되는 뉴욕교협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밝혔다. 부회장 이만호 목사는 “화합과 소통으로 예수사랑을 실천하는 본을 보이며, 1년동안 회장을 잘 보필하겠다”고 당선소감을 말했다.



지난 31일 총회를 마친 뉴욕교협 신임회장단이 기념촬영 했다. 왼쪽부터 감사 김영철 목사, 평신도부회장 이상호 집사, 신임부회장 이만호 목사, 신임회장 김홍석 목사, 현회기 회장 이종명 목사, 감사 김주열 장로와 김기호 목사.

지난 31일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에서 개최된 총회는 2명의 부회장 후보가 등록했으나 총회 3일전 김진 목사가 자진사퇴하는 바람에, 이만호 목사가 단일 후보로 총회에 섰다. 이를 두고 여러 가지 잡음이 예상돼 교협 임원단 및 선관위가 신경을 곤추 세웠으나 비교적 무난하게 총회를 마쳤다는 평을 받았다. 회기에 앞서 드린 예배는 부회장 김홍석 목사의 인도로 기도 이상호 집사(이사장), 헌금기도 정관호 목사(교육분과), 성경봉독 이광모 장로(회계), 말씀 방지각 목사(증경회장)의 순서로 진행됐다. 방지각 목사는 “한나의 믿음과 기도”(삼상1:17-18)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기도는 응답이 있어야 한다”고 전제하고 “믿음 없는 기도, 응답을 바라지 않는 기도가 문제다. 기도는 대화다. 한 마디 말

하고 세마디를 들어야 한다. 응답 받는 기도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대표적이네, 기도하고 성경을 읽어야 응답을 알 수 있으며, 또 설교 중에 간절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방 목사는 “오늘이 종교개혁일이다. 루터의 그 행동의 원동력은 믿음의 기도에 있었다. 우리 삶이 믿음의 기도가 돼야 한다”며 미국 대선과 한국을 위해, 신앙의 회복과 도덕성 회복, 교회 회복, 차세대 성령 충만 등의 제목을 놓고 통성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총회는 회장 이종명 목사의 사회로 회장인사, 개회기도(안창익 목사), 회원점명, 개회선언, 회순채택, 전회의록 낭독, 사업보고, 감사보고, 재정보고 순서로 진행됐다. 42회기 교협은 교협갱신을 위한 대토론회를 시작으로 4회의 임실행위원회와 신년감사예배 및 하례만찬, 부활절 새벽연합예배,

할렐루야대복음화대회를 치렀으며 이외에 이영훈 목사와 조찬기도회, 에콰도르 지진구호성금 모금, 이단대책 세미나, 공로상 포상 등의 행사를 치렀다. 감사 김기호 목사는 집행부의 헌신과 수고로 수입재정이 예산에 비해 증가했다며 수입지출 결의서 결재가 100% 잘 됐다고 평하고 이영훈 목사 후원금은 교협 다락후계실 설치비용 7천 달러를 제외하고 CD로 보관됐다고 밝혔다. 교협건물 모기지는 매달 2,518.01달러가 지불되며 렌트 월 수입 3,200달러에서 남은 금액은 9월 30일 현재 18,493.39달러가 남아있다. 회계 이광모 장로는 총수입 360,862.02달러, 총지출 333,926.74달러, 잔액 26,935.28달러로 보고하면서, 지난 회기에 비해 임원들의 활동비 지출은 최소한도로 이뤄졌다고 치하했다. (10면으로 계속)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온라인으로 공부합니다”

학사: 성서학과, 기독교상담학과
석사: 목회학과 (M.Div), 신학과, 기독교상담학과
박사: 목회학과 (D.Min)
수료증: 가정상담 사역자, 유아교육 교사/원장

ATS 정회원
월드미션대학교 온라인 프로그램
www.wmu.edu

월드미션대학교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admissions@wmu.edu, 213) 388-1000

조은출판사

20년 경력의 “월간광야”노하우로 원고 수정부터 편집, 인쇄까지 품격있는 책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Tel (626)789-1301, (626)522-9909
대표 발행인 목사 myong@joenchulpan.com

7면 교회 역사를 보면 성경이... 조진모 목사

8면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13면 제2회 선교중국 2030 선교대회 노봉린 박사

16면 인/터/뷰 윤임상 교수(월드미션대학교)

2017 YWAM Senior mini DTS

인생의 전환점, 지금은...

2 Corinthians 6:2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For he says, "In the time of my favor I heard you, and in the day of salvation I helped you."
I tell you, now is the time of God's favor, now is the day of salvation.

교육일정
2017년 1월 9일~2017년 2월 3일(4주)
도미니카 베이스 도착일자는 1월 9일이며 베이스 출발일자는 2월 3일 부터입니다.

참가신청
아래의 이메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E-MAIL:seniordtsdr@gmail.com

지원자격
55세 이상 한국어가 가능한 사람으로써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신 기독교인 중에서 최근 마약, 알코올, 담배 및 기타 중독이 없으신 분

기타문의
미국 +1 808-345-0807(공 혁 선교사), 070-4606-6628 (인터넷본)
+1 808-333-2029(지미 채 선교사)
+1 301-655-2209(전 구 선교사)
도미니카 공화국 +1 809-914-1930(김현철 선교사)

Youth With A Mission
Km 18 Carretera Yamasa Santo Domingo Norte, Republic of Dominicana

인간이 만든 또 다른 재앙, “헌옷”

뉴스위크, 패스트 패션 헌옷 폐기물 재난적 수준으로 쌓여간다고 경고(2)

섬유재활용위원회와 중소기업진흥위원회 사장인 트랜스-아메리카의 소유주 에릭 스티븐이 직접 의류창고를 보여줬다.

지게차가 의복 봉치를 들고 코너를 돌아 높달라게 쌓인 의복탑 위에 올랐다. 그리고 다시 코너를 돌아 적재구획에 높이 쌓인 다음 봉치를 집어 들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선 작업자들이 눈 깜짝할 새에 옷을 훑으며 쓸만한 물건을 꺼낸다. 가끔 빈티지 리바이스와 밀리터리 재킷, 촌스러운 디자인의 크리스마스 스웨터 같은 보석을 발견할 때도 있다. 이런 아이템은 사람들이 살 만한 다른 옷과 함께 작은 통에 집어넣는다.

트랜스-아메리카는 이들 의복에 이윤을 붙여 브루클린 빈

입한다는 사실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미국의 헌 옷이 가격대 비 품질이 좋다고 평가하기 때

패스트패션 의복이 급증하며 트랜스-아메리카는 또 다른 문제에 직면했다. “폴리에스테르

지 않는다. 의복을 만들기 위해 자원을 낭비하는 것도 지구에는 파괴적 영향을 준다. “결국 매퍼지에 묻힌다는 점에서 자원의 낭비”라고 요람에서요람까지상품혁신센터(Cradle to Cradle Products Innovation Institute)의 애니 걸링스루드는 말했다.

“지구가 지불하는 비용이다. 기업도, 소재를 만든 사람도 비용을 지불한다. 이들 옷을 만들기 위해 새 물질을 또 소재로 써야 하는 수요가 끝없이 생긴다.”

아디다스와 리바이스, 나이키, H&M 등 다국적기업은 소비자가 계속해서 자사 제품을 구매하길 원하고, 따라서 패스트패션 사업모델을 포기할 생각이 없다. “패션의 지속가능성



시론

"호가호위(狐假虎威)의 적폐현상"



최동진 목사 (샌디에고 반석장로교회)

지금 한국은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으로 인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의 안개 정국이다. 일개 자연인인 최씨가 대통령에게 위임된 다방면의 국정에 깊이 개입하여 직,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을 뿐 아니라 개인적인 권력을 허세(虛勢)와 세도(勢道)를 부린다는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

원래 호가호위(狐假虎威)란 여우와 관련된 고사(故事)인데, '여우(狐)가 호랑이(虎)의 위세(威)를 빌린다(假)'는 뜻으로 실력도 없는 사람이 위사람의 권세(權勢)를 이용해서 허세(虛勢)와 세도(勢道)를 부린다는 의미로 활용되고 있다.

빌림의 왕자인 호랑이는 온갖 짐승들을 다스리며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호랑이가 여우를 잡아먹으려 하자, 꼬 많은 여우가 말하기를 "너는 감히 나를 잡아먹을 수 없다. 나는 천제(天帝)의 명을 받아 온갖 짐승들을 다스리는 우두머리인데, 지금 내가 너를 잡아먹는다면 이는 천제(天帝)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리라. 만약에 내가 너의 말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앞장 설테니 내 뒤를 따라와 보거라." 여우의 당당한 말에 호랑이는 그만 속고 말았다. 결국 호랑이 앞에서 여우가 당당히 앞서 갔는데, 만나는 짐승들마다 슬금슬금 피하거나 달아나는 것이 아닌가! 결국 호랑이는 짐승들이 자기를 두려워해서 달아난 것인지도 모르고 여우를 두려워해서 달아난 것으로 여겨 여우를 살려줬다는 고사이다.

우리나라의 슬픈 역사 가운데에는 완장질이 있었다. 36년의 일제 시대나 공산당이 지배할 때에 완장을 채워주면 마치 모든 사람의 생사여탈권이 자신에게 주어진 양 허세를 부리며 죄 없는 양민들을 무참하게 밀고하며 짓밟았다. 대개는 완장을 차는 자들의 심리는 굉장한 권력 지향적이고 자기애가 강하며, 타인을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가 극히 강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면 이들의 삶은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 개인과 사회관계를 넘어서 좀 더 확장된 개념의 호가호위가 있다. 이것은 사대주의(事大主義, Flunkysim)현상으로 나타난다. 자국보다 더 강한 나라를 무조건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따르려는 의식이나 주의인데, 그 이면에는 자신의 약한 면을 숨기고 강한 제국의 문화 시민임을 은근하게 앞세움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호가호위 심리가 깔려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호가호위는 비단 정치권력을 등에 업은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만은 아니다. 종교 권력을 앞세운 호가호위는 무서우리만큼 영혼을 파괴시킨다. 중세 카톨릭의 종교권력을 등에 업은 교황들과 사제들의 호가호위는 1,000년간 흑세무민(黑世無民)의 암흑기를 낳았다. 교황을 중심으로 한 교회의 부패는 극에 달하였다.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에 교황이 된 알렉산더 6세(1492-1503), 율리우스 2세(1503-1513), 레오 10세(1513-1521) 등에 이르러서는 절정에 오른다. 예컨대 알렉산더 6세는 교황에 선출되기 위해 막대한 양의 돈을 뿌려 추기경들의 표를 샀으며, 교황이 된 후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 자기 부하들도 독살하고, 성직을 매매하며, 사형수를 돈을 받고 풀어주고, 근친상간을 눈감아주었으며, 발렌시아의 추기경인 '피터 멘도자'에게는 돈을 받고 '미소년'을 임명할 수 있게 허락하기도 했다. 심지어 수도원은 동성애가 만연하였고 수녀들은 사제들의 음욕의 대상이 되어 원치 않는 임신으로 아이들을 출산하게 되면 대부분 사제로 유기하기도 하였으며, 특별한 경우는 수도원 안에 이들을 양육하고 훈련하여 사제들을 돕는 보조 사제로 키우기도 하였다. 중세문화의 귀족부인의 정부(情夫)는 언제나 사제였을 정도였다.

일례로, 16세기 중흥적 종교개혁자 로테르담의 에라스무스는 사제와 여신도 사이에 태어난 사생아였다. 이러한 부패는 교황이나 고위 성직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위성직자들도 그런 부패에서 자유롭지 않았다. 사제의 혼외관계는 너무나 만연해 있어서 '사제의 자녀'라는 말이 전혀 낯설지 않았을 정도였다. 더불어 성직을 돈으로 매매하는 일이 일반적이었기에 신학수업을 전혀 받지 않은 사람들이 돈으로 성직을 받아 호가호위 하였으며, 이들은 죽은 자의 영혼구원을 위해 기부를 중용하며 온갖 미사를 드려 부를 축적하였던 것이다. 마침내 베드로 성당의 건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면죄부(Indulgence)를 판매하면서, 산 자는 물론 죽은 자의 영혼이 천국 가는 직행열차라고 속였으니, 종교권력의 타락은 극에 달하였던 것이다. 이 모두가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미화된 지상 교회 권력을 등에 업은 타락한 교황들과 배후의 사제들의 호가호위의 적폐현상 때문이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가인 폴리비오스가 말한 대로 우주란 같은 역사를 들고 도는 것인지도 모른다. 인류의 문화와 역사가 발전하면서도 동시에 순환성(Historic recurrence)이 존재하는데, 현대 정치는 물론 현대 교회와 목회자들의 성적타락, 물질숭배, 명예추구 현상이 중세 교회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그 암흑의 역사의 순환성을 무시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직시하며 주의 이름을 앞세워 호가호위하는 현대교회와 목회자를 고발하지 않을 수 없는 시점이다.

johndjc@yahoo.com

천연소재는 100% 재활용 가능하나 합성섬유는 향후 5-10년 예상 재활용기술 상용화 못되면 중고의류산업 위기,, 처리할 곳 없어져

티지 매장에 판매한다. 그런데 이렇게 판매 가능한 물건은 전체의 2%밖에 되지 않는다. 나머지는 티셔츠와 바지, 방한복 등 포괄적 카테고리 분류한 후 품질과 소재에 따라 다시 세세하게 구분한다.

의복의 40%는 다른 국가로 수출된다. 미국 매장에 판매하고 남은 옷 중 가장 가치가 높은 중고 빈티지 의류는 일본에, 중남미 국가는 중간급의 물건이 수출된다. 동유럽 국가는 방한복을, 아프리카는 다른 어떤 국가도 가져가지 않는 저급의 물건을 받는다.

1980년대 아프리카 국가들이 보호주의 경제정책을 폐기하면서 아프리카 시장으로 중고 의류가 쏟아져 들어가기 시작했다. 가격도 싸고 아프리카에서 자체 생산한 의류보다 품질이 좋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미국의 헌 옷은 아프리카 시장을 독점했다. 2004년 우간다에서는 거래 의류의 81%가 중고 의류였다. 옥스팜 보고서를 보면 2005년 중고 의류는 사하라 이남 지역 의류 수입의 절반을 차지했다. 그 결과 1990년대 초반부터 아프리카 국가의 섬유산업은 붕괴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버린 헌 옷을 아프리카가 구

문이다. 그러나 이런 시각도 조만간 변할 수도 있다. 2005년 옥스팜 보고서를 보면 케냐에서 수입하는 중고의류 중 최대 25%가 품질 미달로 판매가 불가능한 수준이다. 이후 패스트 패션의 시장 점유율이 폭증했고 서구 소비자 사이에서 패스트패션은 '두 번만 입어도 헤어지는 옷'과 동의어가 됐다. 아프리카의 소비자 또한 중고의복이 아시아에서 생산됐다가 영국과 미국에 잠시 정차한 후 다시 아프리카로 수출된 저렴한 옷이라는 사실을 알 아낼 수 있다. 그럼 이들도 미국인처럼 그냥 새 옷을 사야겠다고 마음을 바꿀지 모른다.

트랜스-아메리카로 들어오는 의복 중 30%는 티셔츠와 폴로셔츠다. 이들 의복은 조각으로 잘라서 자동차 매장이나 기타 공업을 길러 만들어져 판매된다. 오염 및 찢어진 의복 등은 의복 중 20%는 공장으로 운송된 후 다시 미세한 천 조각으로 절단돼 건물 단열재나 카펫 충전재, 자동차 바닥 매트 등에 들어간다. 트랜스-아메리카에서 의복을 재활용하는 방법 중 가장 수익성이 낮은 경로다.

나 폴리-면 혼방으로 만든 의복이 많아졌다"고 스티븐은 말했다. "품질이 좋지 않은 의복은 걸레나 공업용 섬유소재로 활용될 가능성이 더 크다. 이런 시장은 요즘 푼돈밖에 벌지 못한다. 옷의 절반이 구매자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된다."

가치는 낮더라도 자동차 매장의 소비재로 재활용하는 게 매퍼지로 가는 것보다 낫긴 하다. 그러나 이들 제품 또한 얼마 못 가 매퍼지로 향한다. 단 열재 또한 벽에서 뜯겨지거나 자동차에서 새 제품으로 교체하면 바로 쓰레기통으로 향한다. 모든 것은 쪼개고 쪼개져서 결국 매퍼지로 향한다.

의복을 땅에 묻는 것만으로도 지구에는 좋지 않은 일이다. 그런데 비용은 여기에서 그치

을 달성하기 위한 최고의 선택은 바로 100% 재활용으로 재료를 구하는 것"이라고 글로벌 럭셔리 지주사 케링의 마리-클레어 다보가 보그 잡지 인터뷰에서 말했다(케링은 구찌, 알렉산더 맥퀸, 생로랑, 스텔라 맥카트니 등의 명품 브랜드를 보유한다). "기존 소재를 재사용하고, 새로운 소재로 변화시키고, 섬유를 다시 뽑아낸다."

제품이 거의 동일한 제품으로 재활용되는 100% 재활용 기술은 생명의 자연과정을 그대로 재현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을 주장하는 운동가에게 좀처럼 손에 잡히지 않는 꿈과도 같다.

(1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준
■ 편집국장: 유원정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665-0009 (대 표) (323) 665-9025 (광고국)
Fax: (323) 665-0056 (편집국) (323) 665-0046 (광고국)
E-mail: lachpress@gmail.com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 (대표) (718) 886-4424 (편집국)
Fax: (718) 886-0074 (대표)
E-mail: nykchpress@gmail.com

The Korean Christian Press (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 (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usiness Administration, Music, Theology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Counseling, Education, Music, TESO, M.Div, MBA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usic, Doctor of Leadership, Doctor of Ministry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 방법으로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점취득 가능



J-1 VISA

EXCHANGE VISITOR PROGRAM
미국 국무성으로부터 J-1 Visa Sponsor 허가

- Exchange visitor Professor and Research Scholar Programs 교환교수, 연구원, 선교사
- Exchange visitor College and University Students Internship Programs 대학생 교환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Midwest University는 미국 연방정부 국무성으로부터 교환교수, 연구원, 교환학생을 위한 J-1 Visa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스폰서로 지정 받았습니다.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대학교수와 각 기관의 연구원, 선교사님들은 안식년 동안 본교에 와서 연구나 강의를 할 수 있으며,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은 교환학생으로 본교에 와서 학점을 취득 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노동허가를 받아 인턴으로 미국의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J비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메일: jvisa@midwest.edu)

본교는 미국대학학력인가기관(CHEA), 미연방정부교육부(USED), ABHE로부터 학사, 석사, 박사 학위과정을 인가받은 대학입니다.

문의: 전화 (636)327-4645, 이메일 usa@midwest.edu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Campus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703)626-8712
E-mail: wdc@midwest.edu, ykko9191@yahoo.com

“C 이하 받으면, 아빠가 선물 사줄게!”

뉴욕타임스, 대만계 광고대학원 학생이 털어놓는 ‘고양이 부모’ 가 내게 준 선물 소개

이민 1세대로서, 대부분의 아시안 부모들은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 좋은 직장에서 자리를 잡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중국, 대만, 인도 그리고 한국에서 유학을 온 학생들 역시 고향에 있는 부모들의 ‘원격조정’과도 같은 바람대로, 전공을 결정하고 수업을 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 현지 부모들에게 아시안 부모 특히 어머니들의 극성스런 교육열은 말 그대로 “호랑이 어머니”(타이거맘)라고 불리울 정도이다.

그러나 2015년 뉴욕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플로리다 광고대학원에서 광고 카피를 전공하고 있는 케이트 차아(Kate Chia)는 자신의 부모가 ‘호랑이 부모’가 아닌 ‘고양이 부모’였다고 말하면서, 그래도 주신 선물이 있다고, 뉴욕타임스에 기고했다(My Asian Pussycat Parents).

꿈의 학교였던 뉴욕대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나는 기쁨에 사로잡혔다. 부모님도 축하해주셨다. 하지만 사실 부모님은 내가 그토록 경쟁이 심한 학교에 진학하기를 원치 않으셨다. 돌이켜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나의 완벽주의적 기질을 부추기지 않은 건 훌륭한 양육 방식이었다고 생각한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는 제가 C를 받아오면 선물을 사준다고 하신 적이 있을 정도였다.

와 거리가 멀었다. 우수한 성적보다는 딸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셨다. C를 받아오면 선물을 주겠다는 말에 나는 걱정을 덜었고 부담감도 덜 느끼게 됐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는 쪽 나쁘지 않은 성적을 받았지만, 한 번도 스트레스를 받거나 성적이 떨어질까 압박을 느끼지는 않았다.

뉴욕대에 진학한 후 나는 마취과 의사의 꿈을 품고 공부를 시작했다. 그러나 유기화학 중



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열심히 산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만든 성실함의 기준에 맞추어 살 수 있었다.

심리학에서 이야기하는 내재적 동기란, 스스로 보람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한다는

국 인구의 5%에 지나지 않지만, 아이비리그 대학 재학생의 20%가 아시아계일 정도다.

하지만 이런 성공에는 대가가 따른다. 아시아계 대학생은 백인 대학생에 비해 자살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고, 이를 실행

1. 스스로 성취욕 키울 수 있는 공간
2. 목표 향해 달릴 수 있는 정신건강

외동딸인 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과 함께 대만에서 LA로 이민을 왔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몇 달 간 나는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성적 때문에 미안해하는 나를 본 아빠는 “이렇게 하자. 네가 C 이하의 점수를 받으면 내가 선물을 사줄게. 그보다 높은 점수를 받으면 아무 것도 사주지 않을 거야. 너에게 선물이 필요가 없을 테니까”라고 말씀하셨다.

보다시피 나의 부모님은 전형적인 아시아계 “호랑이 부모”

간고사를 앞두고 도서관에 틀어박혀 22시간 동안 한숨도 자지 않았다는 소식을 들은 부모님은 의대 진학에 대해 다시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다.

부모님의 걱정 때문은 아니었지만 결국 의대 공부에 별로 적성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전공을 바꾸었다. 2학년 때 심리학 계몽을 듣고 흠뻑 반해 심리학을 전공하고 광고대학원에 진학했다.

나는 성적 타령만 하지 않은 부모님 덕에 나 자신만의 성취욕을 갖게 됐다고 생각한다. 부

의미이다. 반대로 부모의 칭찬이나 돈, 인정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한다면 이는 외재적 동기에 의한 행동이다. 내재적 동기에 의한 목표 추구는 더 강력한 힘을 안겨준다. 부모로부터 높은 성적에 대한 압박을 받은 아이는 학업에 대한 내재적 동기를 형성할 기회를 잃게 된다.

“호랑이 부모”의 양육법이 효과적이지 않다는 뜻은 아니다. 아시아계 미국인의 학업 성취도가 높다는 것은 통계적으로도 잘 나타난다. 아시아계는 미

에 옮기는 학생들도 있다. 코넬 대학 캠퍼스에서 자살한 학생의 수는 1999년부터 2006년까지 21명인데, 그 중 13명이 아시아계였다. MIT에서도 지난 15년 간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의 42%가 아시아계였다.

나는 C보다 좋은 성적을 받아 선물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는 나에게 가격을 매길 수 없는 두 가지 선물을 주신 것 같다. 스스로 성취욕을 키울 수 있는 공간,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 달릴 수 있는 정신 건강이다.

내 신앙에 따라 소중한 한 표 행사한다!

(1면에서 계속)

그런데 복음주의자는 TV 정치 해설 쇼나 대선 유세 그리고 선거용 홍보 매체에서는 어떤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응답하고 있어, 자신이 믿고 있는 종교적 신념이 정치적 결정에 있어 우선순위가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복음주의자처럼 중생을 경험한 비복음주의적 크리스천들 역시 종교적 신념을 후보나 정책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하고 있다(30%).

명목상 크리스천, 즉 자신을 크리스천이라고 말하지만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무니만 크리스천’인 그룹은 현재 미국에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중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있어 정치적 결정을 하도록 영향을 주는 요소는 복음주의자나 중생을 경험한 크리스천들과는 그 양상이 다르다:

- △가족들(12%) △친구들(11%) △대선 유세 광고(11%) △뉴스 보도(10%) △종교적 신념(10%) △교회 목회자(9%).
-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불신자들은

경우, 뉴스 보도가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이다(18%). 그리고 종교적 신념(15%) 그리고 TV에서 진행되는 정치 해설 프로그램(12%)이다.

마지막으로, 종교적 회의론자들, 무신론자, 불가지론자 그리고 아무런 종교적 연관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5% 영역에서, 가족들, 뉴스 보도 그리고 TV 정치 해설 프로그램 등이 영향을 준다.

미주크리스천신문 새로운 이메일 주소 - NY: nychpress@gmail.com, LA: lachpress@gmail.com

소망 칼럼

하나님의 뜻이거든 그대로 행하라



박재호 목사 (브라질 세소망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태어났다.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그러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주의 뜻을 따라 행동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을 도외시키고 자행자지하는 것은 신자의 모습이 아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삶을 살면 결국 망하고 만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어떤 노인이 길을 걷다가 네 거리를 만나서 어느 쪽으로 갈까 망설였다 마음 속에 동쪽으로 갈 것을 정해 놓고, 그래도 이 지팡이가 가리키는 쪽이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손에 잡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더니 지팡이는 동쪽이 아닌 서쪽을 가리키는 것이었다. 다시 지팡이를 집어던졌더니 지팡이가 동쪽을 가리켰다. 그래서 노인은 기뻐하면서 미리 생각했던 대로 동쪽을 향해 걸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고집과 욕심대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롱하고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불행을 자초하는 일이다.

성도들은 무슨 일을 하거나 계획을 할 때 먼저 “하나님의 뜻이든 행동한다”는 말을 빼놓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을 위한 놀랍고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아시며 우리의 삶에서 일어날 사건들을 모두 다 알고 계신다. 그리고 그 사건들이 어느 때에 일어나야만 우리의 삶에 궁극적으로 유익하며, 그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성취될 것인지를 완벽하게 인지하고 계신다.

물질의 소유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물질은 인생에게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그러나 물질이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 물질은 다만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과 방편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거기에만 도취되어 영원한 삶을 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노아 때의 사람들과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과 같이 모두 멸망당할 운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다. 야고보는 장수하기를 떠나고자 하는 자들을 향하여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간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약4:14)고 했다. 일 년을 계획하면서도 눈앞의 일은 예측 못하는 것이 인생이다. 이렇게 우리는 미래가 불확실한 삶을 살고 있다. 성경은 계획성 있는 삶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 계획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미래는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늘 기억할 필요가 있다. 거기에 나오는 부자가 현대를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라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날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뉘 것이 되겠느냐”(눅12:20)고 물으신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자는 비록 미래 지향적인 계획은 세웠지만 불확실한 삶에 대한 준비는 하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이처럼 불확실하다. 오직 영원하신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만이 영원한 삶인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허탄한 삶을 사는 자이다.

인생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이다. 따라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세우고 자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인생을 취하시면 그만이다. 그러므로 인생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도 자신의 분수를 모르고 자신의 권력과 능력과 재물을 자랑하며 뽐내는 자들이 많다. 이런 삶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이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은 결국 망하고 후회만 남게 된다. 테일러(Taylor)는 “주님의 뜻을 너희 뜻처럼 향하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 뜻을 당신의 뜻처럼 행하실 것이다”라고 했다.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면 주님은 나의 삶을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격조 높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신다.

nammicj@hanmail.net

11월 6일부터 서머타임 해제



시계 오전 2시에서 1시로 돌려야

11월 첫 주일인 6일 밤을 기해 서머타임이 해제된다. 오전 2시가 오전 1시가 된다. 토요일인 11월 5일 잠들기 전에 시계바늘을 한 시간 뒤로 당기면 된다.

WE THE MESSENGERS

2016년 12월 27-30일

지금 신청하세요

18세 이상 / 대학생

1 차등록 마감 \$250 10월31일

2 차등록 마감 \$300 11월30일

3 차등록 마감 \$350 12월23일

숙박/식사 포함

GKYM 키즈 (5세-12세) \$150 (고정회비)

GKYM 유스

일반등록과 같은 회비입니다 (13세-17세)

문의

www.gkym.org
rochestergkym@gmail.com

주강사/크리스찬 아티스트

 조지 배워 OM 창립자	 임 은미 케냐 선교사	 마이클 오 국제 로잔운동 총재	 유 제이 케이팝 스타
 김 혜택 뉴욕 중신교회 담임목사	 찰스 지머만 갈보리 교회 담임목사 및 비블리칼 신학교 교수	 노 승환 토론토 밀양교회 담임목사	 AMP 크리스찬 래퍼
 정 민웅 캐버넌트 헬로십 교회 담임목사	 박 형은 중앙 선교교회 담임목사	 백 승환 마이애미 캐버넌트교회 담임목사	 장 종택 찬양 사역자
 노 희순 토론토 큰빛교회 담임목사	 김 은열 뉴욕 중신교회 EM목사	 마크 최 뉴욕 IN2교회 담임목사	 브라이언 김 찬양 사역자

LOCATION ROCHESTER RIVERSIDE CONVENTION CENTER, HYATT ORGANIZATION GKYM INTERNATIONAL GLOBAL KINGDOM YOUNG ADULT MISSION FESTIVAL

목양실에서...

노창수 목사
(남가주사랑교회)



김치 명상

젊었을 때는 양식과 일식을 좋아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한식이 더 좋아집니다. 그것도 잘 차린 식당의 요리가 아니라 아내가

차려주는 소박한 집밥이 좋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구운 김으로 싸서 맛있게 익은 김치와 함께 먹는 게 최고로 맛있습니다. 아

내는 나이가 들어가며 예전보다 밥하는 것을 덜 즐겨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점점 더 집밥이 좋습니다. 특히 아내가 여러 가지 일로 바쁜 날에도 서둘러 집에 들어와서 저를 위해 상을 차려야 할 때는 조금 미안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는 마세요. 저는 하루 삼시 세 때를 다 집에서 챙겨 먹는 '삼식'은 절대로 아닙니다.

집밥을 먹을 때 자주 찾는 음식은 당연히 김치입니다. 저는 요즘 김치의 맛에 매료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화 기능이 약해서 매운 김치를 물에 씻어 먹어야 했던 제가 요즘은 매운 김치도 곧잘 먹습니다. 매운맛이 중독성이 있는지 김치를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거나, 몸이 아프거나, 혹은 '고추를 먹지 못하면 혁명도 못한다'고 말한 중국의 마오쩌둥의 말을 빌려서 '김치를 먹지 못하면 큰일을 못한다'고 엉뚱한 주장을 하는 마니아는 아니지만 점점 김치가 당기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어떤 김치 전문가에 의하면 김치는 적어도 다섯 번 죽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배추를 밭에서 뽑을 때 죽고, 배추를 반으로 쪼갤 때 죽고, 배추를 소금물에 절일 때 죽고, 배추를 매운 고춧가루와 새우젓으로 양념할 때 죽고, 그리고 배추를 김치냉장고 넣거나 김장독에 담아 땅속에 묻을 때 죽는다고 합니다. 또 어떤 김치 전문가는 두 가지를 더 추가합니다. 김장독에서 김

치를 꺼내 칼로 조각조각 썰 때 죽고 그리고 김치가 사람의 입속에 아삭아삭 씹히면서 죽는다고 합니다. 김치는 적어도 5-7번의 죽음을 통해 제 맛을 냅니다. 죽음을 통한 영혼의 주장을 하는 마니아는 아니지만 점점 김치가 당기는 것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김치를 밭에 엮어 먹으며 엉뚱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치와 신앙이 어떤 면에서 비슷한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치가 죽어야 제 맛을 내는 것 같이 사람도 제대로 죽어야 신앙인의 맛을 내는 것 같습니다.

나의 믿음은 김치와 비교해봅니다. 나는 매일 밥상에 올라와도 질리지 않는 편안한 김치 같은 사람인가? 나는 죽고 또 죽고 새롭게

태어난 김치같이 '자아'가 죽어 새롭게 변화되었는가? 나는 오래 인내하고 숙성하여 깊은 맛을 내는 김치 같은 성숙한 신앙인인가? 나는 양념을 받아들여 간이 골고루 배어 어떤 음식과도 잘 어울리는 김치같이 조화롭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인가?

오늘 저녁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밥 위에 적당하게 익어서 감칠 맛 나는 김치를 올려 먹으며 새롭게 결심 합니다. 나의 자아가 죽고 또 죽고, 모든 과정을 인내하고 성숙하여 모두에게 김치같이 유익하고 감칠맛 나는 인생이 되고 싶다고.

푸/른/초/장

이영상 목사
(뉴욕산정교회)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라는 이문열씨의 인기 많았던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날개 없는 것처럼 추락하는 하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람에게서는 누구나 다 날고자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날개를 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날개를 어떻게 다느냐입니다. 누가 달아주었느냐에 따라 끝없이 추락할 수도 있고 독수리처럼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날개는 하나님께서 달아주시는 성령의 날개입니다. 이 날개를 달고 우리는 주님이 계신 곳까지 힘써 날아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속의 하만의 날개는 세상의 간교한 지식과 권모술수로 얻게 된 잘못된 날개였습니다. 헛된 날개였고 교만의 날개 이었고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불순종의 날개였습니다. 하만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갔지만 결국 오늘 본문 속에서처럼 비참하게 추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다. 그런데 모르드개만 죽이는 게 너무 약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결국 왕을 은 일만 달란트로 설득해서 바벨론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일 수 있는 허가까지 얻어내었습니다. 인생의 사악한 지혜로 만든 날개를 가지고 높이 올라간 하만은 기분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성을 들락거리다 보면 아직도 성문 앞

려고 교수대를 무려 50규빗이나 되려 높이로 세웠습니다. 50규빗은 23미터입니다. 이 높이에서 사람을 달아내면 아마 끌어올리려다가 죄인은 끝까지 올라가지도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만이 교수대를 만들던 밤에 바벨론왕은 잠이 오지 않았습다. 수많은 밤을 왕이 보냈지만

왕은 이일로 기분이 많이 매우 언 좋아졌습니다. 나의 생명을 즉 바벨론왕을 구한 사람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데 자기 목숨을 구한 사람을 반대한다는 것은 마치 자신을 반대한 것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왕이 잠이 안와서 책을 읽으면서 뒤척이는 시간에 하만을 모르드개를 자기가 만든 높은 교수대에 목 대달아 죽이려고 왕에게 허락을 얻으려고 왕궁 뜰에서 왕의 면대를 기다리고 있었습다.

왕은 왕궁 뜰에 있는 하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어전으로 들어오라고 말합니다. 들어온 하만에게 왕이

아 했습니다. 하만에게는 잠으로 끔직하고 괴로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모르드개를 죽이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왕에게 갔다가 오히려 왕의 명령으로 그를 존귀케 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때 하만의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번뇌하여 머리를 싸매고 급히 집으로 돌아왔다고 말합니다. 아마도 머리가 많이 아팠을 것입니다.

집으로 와서 이 번뇌가 사라지기 전에 내시에게 전갈이 옵니다. 왕비가 배후신 잔치에 참여하십시오. 하만은 자기만 초청했다고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면서 잔치에 참여합니다. 그러나 작각속의 이 잔치는 우리가 잘 아는 하만의 최후

뜻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잠 안오는 밤이 과연 바벨론왕에게 얼마나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잠 안오는 밤은 누구라도 다 겪게 되는 아주 흔한 생리 현상일 것입니다.

바벨론왕의 잠 안오는 그 밤은 역사를 변하게 하는 밤이었습니다. 바벨론의 모든 유대인의 생명을 구한 밤이고 하만이 추락하고 모르드개가 비상하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던 역사가 변하던 밤이었습니다. 바벨론왕에게 잠이 안왔던 그 밤이 불신자들에게는 우연처럼 보이겠지만 성도의 눈으로 보면 누구라도 다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만은 그 밤에 바벨론왕이 잠들지 않게 만들어 궁중일기를 듣게 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잠 못드는 작은 일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혹시 우리에게도 잠 못드는 밤이 오면 TV나 만지 하지 말고 야, 하나님이 무언가 역사하시나 보더라고 아시고 궁중일기는 없으니까 성경책을 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잠 안오는 밤에도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항상 작은 일과 큰일은 유기적으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조심스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추락하는 하만 (에스더 7:1-10)

이 밤은 아주 중요한 밤이었습니다. 수많은 잠이 안오는 밤이 있었지만 이 잠 안오는 밤은 아주 특별한 밤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 밤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잠이 오지 않아 다른 날 같았으면 TV(?)나 보던지 아니면 술이나 마쁨으로 잠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아내 세레스와 많은 친구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으면 왕이 특별히 자기만 잔치에 초청했냐고 자랑했습니다. 이때 그 아내 세레스와 함께한 친구들이 하만에게 말합니다.

그 나쁜 모르드개를 오십 규빗이 되는 높은 교수대에 목대달아 죽이게 해달라고 왕에게 간청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하만은 그 말을 아주 기쁘게 받아들여서 하인들에게 명하여 50규빗이나 되는 교수대를 자기 집 뜰 안에 만들게 합니다. 기본 좋게 모르드개를 매달아 죽이

먼저 묻습니다. 만일 이 왕이 누군가를 존귀하게 만들어주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는데 가장 좋겠냐고 묻습니다. 하만은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자는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평소 자기 생각한 대답을 합니다. 왕복을 입고 왕관을 쓰고 왕의 말을 태워가지고 성중의 거리거리마다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큰소리로 이 사람은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고 외치는 것이 좋겠냐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왕은 기다렸다는 듯이 그렇다면 지금 즉시 성문 앞에서 무릎 꿇고 날마다 기도하는 저 모르드개에게 네가 말한 대로 하라고 명령합니다. 하만은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모르드개를 왕의 말에 태워 왕복과 왕관을 쓰고 입혀서 성중거리를 데리고 다니면서 '모르드개는 왕이 존귀케 하기를 원하는 자'라고 외쳐

의 만찬이 되고 맙니다. 하만은 그 잔치상에서 끌려나가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만들었던 50규빗 높이의 교수대에 매달려 죽게 됩니다. 하만의 교만은 결국 멸망으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교만한 자의 마지막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만을 추락시키시고 모르드개를 높이셨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종종 하나님은 큰 일만 주관하신다고 착각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 간에 전쟁이나 대통령이 뽑히는 일 같은 큰일만 하만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상 속에 일어나는 사소한 일은 우연이라고 간주합니다.

그러나 성경 속에서 우리는 바벨론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사소한 일까지도 섭리하셔서 하나님의 큰

크고 대단한 일만 중시 여기고 사소한 일에는 세상과 똑같이 행하며 살아간다면 성도라고 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작은 일 일지라도 그 일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의미에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이 땅을 살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르쳐 마태복음2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항상 깨어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0면으로 계속)

뉴욕총신교회 담임목사 청빙

뉴욕총신교회 2대 담임 김혜택 목사님이 은퇴하시는 관계로 3대 담임목사님을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1 지원자격

- RCA(Reformed Church in America) 신학과 본 교단 사역에 결격사유 없으신 분
- 정규 신학대학원 졸업(M.Div. 이상)
- 목사안수 후 7년 이상 전임(full-time) 목회경력
- 이중언어(한국어/영어) 가능하신 분
- 미국 내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법적인 문제가 없으신 분

2 제출서류

- 이력서
- 추천서: 목회자 포함 3인 (성명, 관계 및 연락처, 추천인이 직접 이메일 접수 가능)
- 본인 및 가족소개서: 목회철학 및 비전, 본인과 사모님 신앙간증문 각 1부, 가족소개 및 사진
- 대학 및 신학대학원 졸업 증명서 각 1부, 목사 안수 증명서 1부
- 설교: 최근 6개월 이내 설교 3편(설교 원고, 동영상 파일 또는 웹주소)
- 기타: 현재 사역하시는 교회 최근 4주간 주보

3 제출처

- 이메일: choongsynchurch@gmail.com
- 우 편: Choongsyn Reformed Church in NY (Attr: 청빙위원회) 153 11 Barclay Ave, Flushing, NY 11355

4 제출마감

2016년 12월 31일

5 문의

choongsynchurch@gmail.com

- 우편으로 제출하시는 분은 이메일로 발송 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확인은 이메일로 통지해 드리며, 2차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 심사결과는 개별통지해 드리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www.choongsyn.net 뉴욕총신교회 담임목사 청빙위원회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 글: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 어: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유약하고 수동적인 삶 서점가의 주동 베스트셀러들은 그 시대 사회적 체제를 반영한다. 최근 한국 서점가에서는 항 우울제와 같은 세상살이에 대한 수동적인 순응과 이해를 가르치는 내용들이 많다고 한다. 사랑, 관계, 만남 등의 삶과 아주 친숙한 소재의 솜사탕 같은 감동적인 이야기들에 쉽게 빠져들도록 쓰여져 있다는 것이다. 혹자의 표현을 빌리면, 단 한 시간가량의 깊이도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로, 생각의 여과를 생략해버린 채 즉각적인 감동에만 머물도록 하는 감성표 피만을 자극한다는 것이다.

근자에 들어오는 유학생들을 통해서 들여다보는 현재 한국의 젊은이들의 모습 속에 그러한 세태가 그대로 녹아져 있음을 보게 된다. 예전에 비해 진취적이지 못하고 유약하고 수동적인 존재로 변모해감을 보는 것이다. 풍랑 많

데서 스스로 그 위대한 꿈을 이룰 능력이 없음을 보면서 절망한다. 그러나 그 절망은 하나님에 주신 꿈 앞에서 회복을 위한 기도로 전향된다. 주님 주신 꿈이 너무나 위대하고 커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벽찬 감각이 있기에, 밤을 새워 주께 그 꿈을 이루어달라고 의탁하게 되고, 마침내 밤을 새워 기도하며 인생의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야성이다.

입맛에 맞는 위로-동남정
오늘날의 시대는 이러한 영적 야성의 부재를 보게 만든다. 혹자에겐, 당신은 풍랑 많은 인생의 밤에 그 풍랑을 밟고 찾아오실 주님 안에서 인생의 분명한 답을 가지고 있는가? 물어보면 대개 공통의 답을 말한다. '나에게 영적인 것을 말하지 마세요. 살아 있음의 순간순간이 고통입니다'라고 대답한

는 설교동남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이다. 영적건강에 유익하지 못한 불을 보듯 뻔 한 것이다.

세상은 온통 고단한 인생길의 연속
고통의 문제에 대해 피한다고 피할 수 있을 것인가? 세계 각지를 다녀 봐도 이 세상에 안전한 위로만을 제공해주는 곳은 단 한 곳도 없음을 본다. 한국에서는 젊은 청춘이어서도 일할 곳이 없고, 취직이 되어도 바람 앞에 등불 같아서 스트레스가 많음을 고백한다. 중국에 가보면, 해안선을 따라 발달된 몇몇의 도시를 제외하고는 삶의 질 자체가 한국의 수십년 전과같이 대단히 척박함을 본다. 인도는 높은 빌딩사이로 개, 소, 돼지가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손에 든 물병하나로 대소변을 해결함을 본다. 필리핀은, 선망하는 직업 중의 하나가 빌딩 앞에 총을 들고

각한 일교차에도 자신의 몸을 가눌 여건이 없어서 내팽개치듯이 길가에 누워 있다. 그런데 그 어두운 인도의 밤에 1-2불하는 담요를 들고서 그들의 육신의 고단함을 덮으며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있다. 이 일에 같이 헌신하는 현지인들도 있음을 본다. 같은 고통의 밤하늘아래에서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차이로 저들의 문제를 설명하기는 심히 부족한 무엇인가를 느끼게 된다. 세상은 가진 것으로만 자신의 영원한 행복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국을 가보면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인한 영혼의 기쁨과 살아있음이, 비록 척박한 흙바닥 예배당 안에서 드러지는 예배임에도 감격에 찬 웃음을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본다. 아무런 찬양의 도구나 현대의 문명의 도구를 가지지 못한 채 필자의 수십년 전 어린 시절 교회당보다 못한 형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교회)



풍랑 많은 세상의 고단함과 피곤함에 대하여

- 입맛에 맞는 위로를 넘어선 영적회복 -

은 인생임에도 삶의 고난과 역경에 힘겹게 맞서는 야성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영적인 야성이 부재한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이다. 어렵고 힘들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찬양하며, 고난의 밤을 하얗게 지새워야 하는데 그런 영적인 야성보다는 현실적인 필요에 순응함에 빠진 걸음들을 보인다.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말씀을 받아들여 그 속에 꿈과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될 터인데, 그러한 길을 보여주는 이도 따라가는 이도 보기가 어렵다. 말씀 안에 받은 꿈과 소망 때문에, 단 하루도 꿈 없이 잠들지 않고 꿈 없이 깨지 않는 복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터인데, 영혼에 들은 바가 없으니 기대감도 없고, 기대감이 없으니 기도도 없는 영적부재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말씀을 받으면 꿈과 환상과 비전을 보는 동시에 험한 세상가운

다. 잔뜩 고통과 절망에 짓눌린 채로 '아프다'고 말하기에 급급하면서 그 아픔에 대한 위로만을 찾아 피하기급급할 뿐, 그 고통의 풍랑을 허용하고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에 대해서는 지극히 무디어 있음을 보게 되는 것이다.

이를 더욱 재촉하는 일들이 오늘날 인터넷 문명 속에서 동남정에 의지하는 신앙생활이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유를 사고파는 '동남정'이 세간에 알려졌다. 단백질과 무기질이 풍부하며 면역력을 높이고 소화 흡수에 좋은 모유를 인터넷에서 구입해 먹이는 일들이 얼마들에서서 상행한다는 것이다. 위험한 행동이다. 바이러스 감염 등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어서 면역력이 취약한 신생아들에게는 한층 더 위험하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세계에도, 말씀의 진지한 배움 없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마구잡이로 설교를 선택하거나 다운 받아 들

지키는 가디언의 삶이며, 영국은 모든 것이 소규모로 비싸게 움직여야 하는, 이제는 기울어지는 해를 보는 느낌의 나라가 되었다.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고단하고 피곤한 인생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언급한 한국, 중국, 영국, 인도, 필리핀... 등등 그 어느 곳에도 인생자체는 소망이 부재하지만, 주님으로 인해 작지만 밝은 소망의 빛이 어둠속에 영롱하게 존재함을 본다. 그 빛의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말씀과 기도, 예배의 영적 생기를 회복하는 곳에 있다라는 것이다. 고통의 끝에서 즉각적인 위로만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 어떤 곳에서 어떤 고통의 일을 만나도 담대하게 이를 다룰 수 있는 영적야성의 강건함이 절망의 자리에 빛이 되려하는 것이다.

세상에 방임하지 않는 영적회복 인도의 밤에는 노숙자들이 심

편임에도, 저들은 자신을 광야 같은 인생에 방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붙들린 채 예비하신 영원한 승리를 향해 진일보 하려하는 것이다.

환경과 조건이 아닌
환경과 조건의 유무가 많은 부분 인생의 승패를 판단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절대적이지 못함을 분명히 말한다. 최근 한국에서 문제가 된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 더 강단 있는 분으로 평가되던 그분의 영적인 피폐함이 얼마나 크게 온 국민에게 상처로 드러나고, 본인에게 죽어보다 더한 불명예를 안아 주었겠는가 하는 것을 보면, 인생의 승리는 결코 세상의 좋은 조건 굽어모으기에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것이다.

성경은 영이 육을 지배함을 증거 한다. 영적감각을 회복해야 함을 말한다.

(16면으로 계속)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어제는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중에 499주년 종교개혁주일로 지키신다고 하는데, 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롬1:17절**이 루터의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한 결정적인 말씀이라고 하는데 알고 싶습니다.
-토렌스에서 솔로몬정 집사

A: 종교개혁자인 말틴 루터는 로마서를 통해 생의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수도사로서 수도원에 있으면서 그의 마음 깊은 곳에 2가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죄의 문제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였습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피부로 느끼면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수도사로 로마를 방문하고 스칼라 산타 성당의 27개의 계단을 기도문을 외우면서 무릎으로 기어올랐습니다. 그렇게 고행함으로써 자기의 죄 용서의 기쁨이 올라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는데도 루터에게는 전혀 죄사함의 기쁨이 오지 않았습다. 그는 무릎으로 기어오르다가 갑자기 그 전에 읽었던 **롬1:17절**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The Just shall live by

죄는 복음의 의로만 해결된다는 깨달음 얻고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95개조 반박문 붙여

Faith). 전에도 수없이 듣고 읽은 말씀이지만 성령 안에서 생명의 빛이 비추어집니다. 거기서 그는 벌떡 일어납니다.

"바로 이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무릎으로 가는 고행으로 죄용서 받거나 구원이 아니라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도 받고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다." 그 길로 루터는 이신칭의의 도를 깨달아 그 영감과 힘으로 종교개혁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루터는 캐톨릭이 성베드로 사원을 짓기 위해 재정이 부족하자 뉘른베르크라는 수사학자를 동원해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보고 그는 지금부터 499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부패한 로마캐톨릭교에 대항하여 독일 비텐베르크 예배당 정문에 95개 조항의 개혁문을 붙였습니다.

이 일로 인해 1521년 4월 17일 루터는 보름즈의 신성로마제국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고 자신의 신학적인 입장을 밝히게 되었는데 새로이 황제가 된 찰스 5세는 교황과는 사이가 그리 좋지 않았지만 독실한 카톨릭 신자였습니다. 루터는 법정에서 "저는 성경과 이성에 의해 납득되지 않는 한 교황이나 종교회의의 권위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순되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거스리는 일은 옳지도 않고 안전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내가 서있나이다. 하나님이며 나를 도우소서 아멘"라고 말했습니다.

루터는 제국 밖으로 몰아내도록 결정됐고 죽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루터는 제후인 프리드리히 3세에게 몸을 위탁하고 그 후에 독일어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착수하여 사제들만 가진 성경을 모든 평신도들이 가지고 성경을 읽고 연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종교개혁의 표어는 5가지인데 **솔라 피데(오직 믿음)**, **솔라 그라티아(오직 은혜)**, **솔라 스크립투라(오직 성경)**, **솔라 크리스토스(오직 예수)**, **솔라 데오 글로리아(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 79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Online Courses Courses (8 weeks)

온라인 강의(8주간)

Oct 10- Dec 2 (10월 12일 - 12월 2일)
DI 8030 Intercultural Communication(교차문화 의사소통)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 Dr. Stephen Park

Off-Campus Courses

Seoul, Korea

Dec 5-9 (12월 5-9일)
PM Pastoral Counseling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Kwanyik Lee

On Campus Courses

2017 봄학기 강의 안내

March 20-24(3월 20 -24일)
DI 8330 Biblical Apologetics in a Pluralistic World
(다원적 세계에서의 성경적 변증론)
<DI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필수과목 대치 과목임>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Daniel Lute

Mar 27-31 (3월 27-31일)
DI 8140 Cultural Anthropology in Biblical Perspective
(성경적 관점에서의 문화인류학)
For D.Ics. Students(필수과목) & D.Min. Students(필수과목)
Dr. Thomas Stallter

April 24-28(4월 24-28일) On campus or Chicago, IL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PM 8030 Gospel Centered Ministry(복음중심사역)
For D.Ics. Students(선택과목) & D.Min. Students(선택과목)
Dr. Matthew Harmon
Dr. Stephen Park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 과목과 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이산한 힌디(The Diaspora Hindi)



11개 국가에 거주하는 11개의 이산한 힌디 종족들의 통합 프로파일. 인도 밖 외국에서 살고 있는 180만명의 힌디어 사용 인구 중에서, 대다수는 접경국인 방글라데시, 미얀마, 파키스탄, 네팔,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살고 있다. 그 외 다른 나라들에도 큰 힌디어 사용 공동체들이 있다. 대부분의 인도 이민자들이 그렇듯이, 힌디어 사용자들은 다른 힌디어 사용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모이는 경향이 있다.

"Hindi"라는 용어는 이 사람들의 종교적이며 사회적인 복합체를 적절히 표현하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힌디는 단순히 언어상의 구분이기 때문이다. 사실, 힌디어를

사용하는 인도인들은 중앙아시아에 널리 흩어져 있는 종교적이고 사회적인 집단들의 집합체이다. 그들은 공통의 언어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종교상의 힌두-무슬림 경쟁구도를 포함하여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면에서 집단 공동체 의식(group identity)을 가지고 있다.

인도를 떠나서 다른 나라로 이주하는 사람들은 대개 높은 카스트 신분계층이며 교육받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현재 다양한 직업에 종사하고 있다. 대부분이 힌두문화의 다양한 면들을 유지하고 있지만 동시에 많은 부분에서 서구의 영향을 받아들이고 있다.

삶의 모습

힌디어는 인도-아리아계 언어이다. 많은 힌디 단어들은 산스크리트어(Sanskrit, 범어)에서 빌려온 것이고, 데바나가리 문자(Devanagari letter)로 쓰여진다. 예전에 우르두 어족(대부분 무슬

림)과 힌디 어족(대부분 힌두교)사이의 엄청난 갈등과 분쟁이 있었다. 이러한 갈등은 1947년 인도와 파키스탄의 분리로 이어졌다. 그때 이후 지금까지 두 집단 사이에는 언어적으로, 종교적으로 무서운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다. 힌디어는 인도의 공용어가 됐고, 우르두어는 파키스탄의 공용어가 됐다. 하지만 파키스탄에는 현재 "인도-파키스탄인"이라 불리는 힌디어를 사용하는 85,000명의 무슬림들이 있다. 불행하게도 파키스탄과 인도가 분리될 때 인도-파키스탄인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힌디어계 사람들은 수많은 사회 집단으로 나뉜다. 가장 큰 집단을 이루고 있는 힌두교도들은 "카스트"라 불리는 4개의 주요 사회계층으로 나뉜다. 이 집단들은 "정결과 불결"의 원리에 기반을 둔 계층적 순서를 가지고 있다. 신분 서열상으로 볼 때, 세습되는 4개의 집단은 승려와 학자들인 "브라만", 통치자들과 군인들인 "크샤트리아", 상인과 전문직업인들인 "바이샤", 노동자들과 하인들인 "수드라"이다. 이 4개의 카스트들은 각각 그 안에 수많은 하위 카스트들을 가지고 있고, 그 하위 카스트들은 다시 작은 단위들로 나뉜다.

카스트는 직업 외에 관습과 풍속과 습관 등에 근거를 둔 문화집단이다. 셀 수 없이 많은 하위 카스트들과 그 아래 작은 단위들로 구성된 힌두 사회의 사람들은 사회적 신분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들은 더 높은 카스트의 생활방식과 관습과 언어습관까지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들이 서로 다른 카스트 간에 결혼하는 일은 거의 없다. 비록, 브라만이 위대한 종교적이고 학술적인 카스트로 여겨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그들에게 힘과 권력을 주었던 교육과 학습은 현재 힌두의 모든 종족과 계층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힌디어는 사업과 교육과 언론의 언어이다. 이주한 새 나라에서 힌디어족들은 모든 큰 도시에서 인도산 향료 가게와 비디오 대여점과 작은 상점들을 차렸다. 파키스탄과 사우디아라비아와 방글라데시에 사는 일부만은 농부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초가집에서 살고 있지만, 가장 부유한 사람들은 여러 층이나 되는 콘크리트 주택에서 살고 있다.

힌디어족들은 새로운 거주지에서 점점 서구화되고 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고,

소고기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고기를 먹는다. 또한, 힌두 여자들은 이혼과 재혼의 권리를 갖고 있다. 티(dhoti, 힌두남자가 무릎을 덮도록 치마처럼 입는 흰색의 하의)를 걸친다. 그리고 이들은 공식적인 행사 때나 이따금씩 "사리"(sari, 몸 전체에 기다랗게 늘어뜨리는 드레스 같은 옷인데, 한쪽 끝을 밑으로 늘어뜨리고 다른 끝을 허리로부터 감아 남은 부분을 어깨 위나 머리에 쓰거나 한다)를 걸친다. 그러나 현재 많은 사람들은 서구식 옷을 입는다.

무슬림의 힌디 어족 여자들은 여전히 "푸르다"(Purdah)의 전통을 지키는데, 이것은 격리돼 있다는 의미에서 몸 전체, 특히 눈을 가리는 것이다. 그러나 푸르다는 서구화와 도시화의 진행 정도에 따라서 약화된 격식의 다양한 수준으로 실행되고 있다.

신앙

힌디어족의 대부분은 힌두교도들인데, 힌두는 종교라기보다는 생활방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은 선하거나 악한 수많은 신들을 숭배한다. 그들은 신들을 달라고 재앙을 피하

기 위해 정기적으로 제사와 제물을 받쳐야 한다고 믿는다.

힌두교는 영혼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육체가 죽을 때 영혼은 다시 환생한다. 즉, 영혼은 동물이나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신들 중에는 동물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소는 신성시 되고, 다른 동물들도 숭배된다.

"업"(karma)의 원리에 따르면, 현재의 모든 행동들이 내세에 영혼이 어떻게 환생할 것인가에 영향을 미친다. 사람이 선하게 살면 그 영혼은 더 높은 신분으로 환생할 것이지만 사람이 악하게 산다면 그 영혼은 더 낮은 지위로 환생할 것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힌디어족들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된 성경과 영화 "예수"가 있다. 그러나 힌두인들은 먼저 수백만의 거짓 신들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하며, 예수님께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이, 무슬림에게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있는 진리들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하다. 오직 기도만이 그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예수 무덤, 수백년 만에 공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사망한 뒤 사흘 간 안치된 곳으로 알려진 무덤이 수백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묘지 복원을 위한 프로젝트 작업을 위해서다. 무덤은 1555년 대리석으로 봉쇄된 이후 지금까지 유지돼 온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영국의 일간 가디언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묘교회'에서 기독교 공동체의 허가를 받은 전문가들이 예수의 묘지를 복원하기 위해 예수의 시신이 있던 장소로 알려진 곳을 봉인한 대리석 판을 들어 올렸다.

전문가들은 도르래로 대리석 판을 들어내니 아래에 공간을 메우는 잔해가 층층이 쌓여있었다고 CBS 방송은 전했다. 방송은 이 잔해들을 치우고 나자 또 다른 대리석 판이 모습을 드러냈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 대리석 판은 회색으로 작은 십자가가 새겨져 있었으며 한가운데에는 금이 있었고 아래에는 희끄무레한 막이 있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고고학자 프레드리크 히베르트는 이 대리석 판이 12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히베르트는 "이게 원래 있던 석판이다. 믿을 수가 없다. 더 봐야 할 것이 많다"며 "분석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결국에는 예수의 몸이 놓였던 돌의 본래 표면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부풀렸다.

복원팀의 선임고고학감독관 안토니아 모로폴루도 "가로 91cm, 세로 152cm 정도의 대리석 판을 들어내는 것이 복원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라고 말했다.

투입된 전문가들은 이번 복원 작업 분석을 통해 묘지의 원래 모습 등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복원은 그리스 아테네 국립고고학대의 그리스 유물 보존팀 등이 맡고 있다.

성묘교회는 전 세계의 관광객과 성지순례자들이 찾는 명소다. 로마제국 시절 콘스탄틴 황제가 325년에 건립했으나 이슬람 세력이 1009년 구조물을 파괴했다. 지금의 교회당 형태는 12세기 십자가인 예루살렘을 재현하며 복원한 이후 모습이다.

교회는 로마 가톨릭을 비롯해 그리스정교회, 아르메니아교회, 에티오피아정교회, 이집트 콥트교, 시리아 정교회 등 범 기독교 6개 종파가 구역을 나눠 공동 관리하고 있다. 이들 교파들은 이곳이 중요한 성지라는 점을 감안해 60시간만 작업할 수 있도록 허락했다.

올해 초 시작된 이번 복원 프로젝트에는 50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으며, 약 400만 달러가 투입된다. 복원 프로젝트는 내년 봄에 마무리될 예정이다.

친부모가 죽이라고 한 기형아 입양한 천사 부부

코, 눈꺼풀, 손, 다리 없이 태어난 기형아기는 태어나자마자 부모에게 버려졌다. 그러나 이 아기는 담당 간호사에게 입양돼 새로운 부모의 사랑 속에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최근 다수의 온라인 미디어들은 인도에서 태어나자마자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기형아의 사연을 소개했다.



인도의 한 기독교 선교 병원에서 태어난 아담은 바르트소시아스-파파스라는 희귀병을 가지고 태어났다. 바르트소시아스-파파스는 얼굴과 몸에 심각한 기형을 가지고 태어나는 병으로 이 병에 걸린 태아들은 대부분 자궁 속에서 죽거나 태어나자마자 죽을 확률이

높다. 다행히 아담은 자궁 속에서 죽지 않고 무사히 잘 태어났다. 그러나 아담을 보고 경악한 친부모는 아이가 저주를 받고 태어났으며 아이를 죽이라고 요구했다. 이를 지켜보던 아담의 담당 간호사 제시카는 아담이 불쌍했다. 제시카는 같은 병원에서 정신과 의사로 일하는 남편과 상의 끝에 아담을 입양하기로 결정했다. 아담 부부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아담을 입양한 것.

아담을 입양한 부부는 아담의 얼굴과 몸을 일반인처럼 만들어주고자 존 반 알트르 의사와 수술을 부탁했다. 또 아담의 사정을 알게 된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아담의 수술비용을 모으는데 동참해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쳤다. 사랑이 넘치는 부모에게 입양된 아담은 건강하게 새로 생긴 동생과 함께 즐겁게 뛰놀며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

이탈리아 중부 6.1 강진...교회 피해 많아

이탈리아 중부에 26일 오후 두 차례 강진이 발생해 주택들이 붕괴되고 일부 주민이 다쳤다. 영국 BBC방송이 긴급 보도했다. 이번 지진은 177km 떨어진 수도 로마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



BBC에 따르면 오후 7시10분쯤 중부 마세라타 지역 비소에서 규모 5.5의 지진이 발생했다. 2시간 뒤 같은 지역에서 규모 6.1 지진이 추가로 발생했다. 지진으로 건물 수십 채가 붕괴되거나 벽면이 부서졌다. 다행히 부상자는 한 명뿐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교회와 같은 높은 건물들의 피해가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밤에 발생해 27일 날이 밝으면 피해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들은 여자에 대비해 서둘러 마을을 떠나고 있다고 BBC는 전했다.

이탈리아 남부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298명이 숨진 지 2개월 만에 또 지진이 일어나자 당시 지진과 관련됐을 것이라 분석이 나왔다. 지난 8월에 발생한 지진도 규모 6.2로 이번과 비슷했고 발생한 지역도 비소에서 70km 정도 떨어진 곳이다.

미얀마, 이슬람테러조직 토벌 빌미 소수민족 탄압 논란

무장괴한의 경찰차 소 습격으로 촉발된 미얀마군의 잔당 토벌작전이 이슬람계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으로 변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와 구호단체 등에 따르면 방글라데시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얀마 서부 라카인 주 북부에서 지난 보름여 간 최소 1만8천여 명의 난민이 발생했다. 난민 대다수는 불교도 중심의 미얀마에서 차별과 박해를 받아 온 이슬람계 소수민족 로힝야족으로 알려졌다.

미얀마군은 이달 9일 괴한의 습격으로 경찰관 9명이 숨진 사건의 배후로 로힝야족 400여 명으로 구성된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조직이 있다고 보고 이 지역을 봉쇄한 채 대대적인 잔당 토벌작전을 벌여왔다.

라카인 주 마웅토 지역의 한 주민은 "지난 23일 군경들이 로힝야족 2천 명을 마을에서 쫓아내고 집 40채를 불태웠다"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은 "임시거처를 세우는 것도 허락되지 않아 군과 경찰을 피해 정착 없이 떠돌고 있다"고 말했다.

로힝야족 인터넷 방송 매체와 현지 인권운동가들은 주민 수백 명이 죽을 처형됐고, 곳곳에서 군경과 불교도들에 의한 고문과 약탈, 성폭행이 벌어졌다고 주장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아그네스 칼라마드 유엔 인권 특별조사관은 성명을 통해 "집과 이슬람 사원을 불태우고 특정 한 신앙의 주민을 모아 총살한다는 소식은 우려스럽고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면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하지만 미얀마 정부는 군과 경찰이 로힝야족을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자우 하타이 미얀마 대통령실 대변인은 "군과 경찰은 불법적인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로힝야족들을 쫓겨난 것이 아니라 군경이 도착하자 스스로 달아난 것이고, 방화 역시 증거를 인멸하려는 테러 용의자들이 저지른 일"이라고 말했다.

라카인주에서는 2012년에도 불교도와 무슬림 간에 대규모 유혈충돌이 벌어져 200여 명이 사망하고 14만 명이 넘는 난민이 발생한 바 있다.

'드론의 두 얼굴' 유통·구호역량 후 모순에선 IS 신병기

취미 생활의 도구나 의약품 구호, 상업적인 편의 등에서 사용됐던 드론이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에 의해 전투의 무기로 사용되고 있다. IS는 이전에도 드론을 무기로 사용했지만, 연합군의 모순 탈환작전에 대해서는 드론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활용 방식도 다양해졌다.



지난달 26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미국 육군 스티븐 타운센드 중장은 이날 화상 인터뷰에서 IS가 작은 드론을 이라크와 미국군을 정찰하거나 폭발물을 떨어트리는 데 공격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운센드 중장은 "IS가 간헐적이거나 산발적인 수준이 아니라 비교적 꾸준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드론을 폭넓게 사용하고 있다"며 "정찰이나 감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로켓이나 박격포를 표적으로 지적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IS가 기지 근처에 착륙할 때에는 평범해 보이지만 폭발해서 인명피해를 내는 '트로이의 목마' 드론을 사용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2주 전에는 이라크 북부에서 이 같은 방식의 드론 공격이 감행돼 쿠르드 자치정부 민병대 전투원 2명이 숨지기도 했다. 지난 24일에는 미군의 전자전(電戰) 시스템이 모술 근처에서 비행하던 IS의 드론을 목격 후 15분 만에 격추시켰다.

미군은 반대로 지난 8월에는 프레데터 드론으로 IS의 2인자 아부 모하마드 알마드니니를 공격해 숨지게 하기도 했다.

이처럼 전쟁의 도구로도 사용되기도 하지만, 드론은 최근에는 취미 수준을 넘어 상업적인 서비스 등으로 활용되며 생활을 편리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다.

트럼프 덕에 웃은 건 CNN...1억 달러 수익

대선을 2주 앞두고 도 막말을 서슴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덕분에 CNN방송은 함박웃음을 짓고 있다. 미국 공영방송 NPR은 25일 CNN이 대선 특수로 올해 전례적인 선거에서 기대하는 것보다 더 많은 1억 달러의 방송-디지털 광고 수익을 달성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도했다.



NPR은 복수의 CNN 내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대선 이 치러진 예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많은 수입이 예상된다며 "트럼프 돌풍이 주된 이유"라고 분석했다. CNN 관계자는 최근 1년간 트럼프를 집중 보도하면서 시청률이 올라갔고 광고 수익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예컨대 버드와이저를 생산하는 다국적 맥주회사 안호저-부시 인베브 USA는 올해 CNN에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광고와 스폰서십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프 강커 CNN 월드와이드 회장은 이달 초 하버드대에서 강연을 갖고 "우리는 트럼프 현상을 미리 인지했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있었다"며 공격적인 보도를 이어간 배경을 언급했다.

트럼프는 여전히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악마로 묘사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협상이 되겠느냐"며 "시리아 내전을 둘러싸고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고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간 배경을 언급했다.

트럼프는 여전히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악마로 묘사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협상이 되겠느냐"며 "시리아 내전을 둘러싸고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고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간 배경을 언급했다.

트럼프는 여전히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악마로 묘사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협상이 되겠느냐"며 "시리아 내전을 둘러싸고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고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간 배경을 언급했다.

트럼프는 여전히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악마로 묘사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협상이 되겠느냐"며 "시리아 내전을 둘러싸고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고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간 배경을 언급했다.

트럼프는 여전히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악마로 묘사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협상이 되겠느냐"며 "시리아 내전을 둘러싸고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고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간 배경을 언급했다.

트럼프는 여전히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악마로 묘사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협상이 되겠느냐"며 "시리아 내전을 둘러싸고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고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간 배경을 언급했다.

트럼프는 여전히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악마로 묘사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협상이 되겠느냐"며 "시리아 내전을 둘러싸고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고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간 배경을 언급했다.

트럼프는 여전히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악마로 묘사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협상이 되겠느냐"며 "시리아 내전을 둘러싸고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고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간 배경을 언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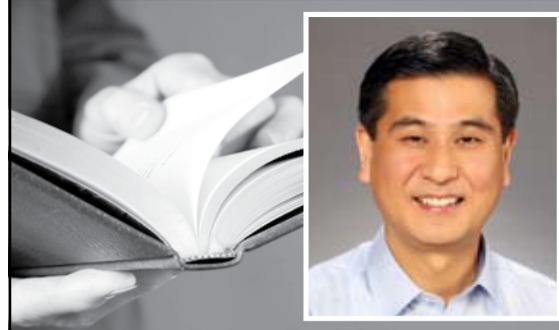
트럼프는 여전히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악마로 묘사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협상이 되겠느냐"며 "시리아 내전을 둘러싸고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고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간 배경을 언급했다.

트럼프는 여전히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악마로 묘사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협상이 되겠느냐"며 "시리아 내전을 둘러싸고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고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간 배경을 언급했다.

트럼프는 여전히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악마로 묘사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협상이 되겠느냐"며 "시리아 내전을 둘러싸고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고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간 배경을 언급했다.

트럼프는 여전히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악마로 묘사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협상이 되겠느냐"며 "시리아 내전을 둘러싸고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고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간 배경을 언급했다.

트럼프는 여전히 날선 발언을 이어갔다.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악마로 묘사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떻게 협상이 되겠느냐"며 "시리아 내전을 둘러싸고 같은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다"고 공격적인 발언을 이어간 배경을 언급했다.



교회역사를 보면 성경이 보인다 (70)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1. 초대 교회 - 어거스틴 (2) - 그는 누구인가? (b)

지난 회 요약: 어거스틴은 초대 교회를 대표하는 교부이다. 그의 신학은 당대와 후대 교회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쳐왔다. 그의 사상은 매우 독특하다. 성경 말씀의 진리를 토대로 형성되었지만, 자신이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경험한 체험적 신앙 역시 빠뜨릴 수 없었다. 그가 자신의 삶을 회상하며 저술한 "참회록"은 독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다. 세상의 어둔 세력에 불합혀 방황하던 그가 회개하고 새사람이 될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얻으려한다. 이번 호에서는 그의 어머니 모니카를 소개한다.

■ 어머니 모니카

어거스틴의 삶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한 인물을 선택하려면, 주저하지 않고 그의 어머니 모니카라고 말할 수 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을 둔 신앙의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최고의 가치가 신앙의 길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잘 달리는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어거스틴의 어머니도 예외가 아니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참회록"에서 자주 모니카에 대하여 언급한다. 그가 세상의 일에 취하여 육체적으로 방탕하며 영적으로 방황할 때에도, 남다른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인내하며 신앙의 길로 인도한 사실을 독자들에게 알리려 하였다. 모니카는 일반적인 어머니 이상이였다. 경건한 신앙의 모범이었다. 어거스틴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그녀로부터 성경의 진리를 담은 말로 훈계를 받은 것 이외에, 어떤 환경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

이다.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경건한 능력이 자신이 변화하는데 중대한 영향력을 끼쳤으며, 자신을 위해 육체적 산고뿐 아니라 영적인 산고를 겪었다는 사실을 주저하지 않고 이 책에 드러냈다. "주님은

어 방탕한 삶을 떠나지 않았다. 몸과 머리가 커질수록 도덕적 타락의 길을 걷던 그 당시의 삶을 회고하면서, 어거스틴은 자신이 죄를 사랑하던 마음과 행동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고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런 환경에 놓인 아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던 어머니의 모습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다. 그의 회고록 제 3

한다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졌기 때문이다. 이런 모니카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거스틴은 무슨 생각을 하였을까?

그는 어머니의 마음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식이 그리스도의 품에 안겨 영생의 선물을 얻는 것을 보는 것이 그녀 소원의 전부이며 확신이었습니니다"(참회록,

부르짖었다. 그는 하나님께 애통하는 마음으로 참회한 것이다. 어거스틴은 그 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모니카에게 알렸다. 평생 기도제목이었던 아들의 회심 소식을 전달받을 때 크게 기뻐할 어머니를 상상하며 달려가 모든 일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이때 모니카의 반응이 어떠한가? 방황하고 있는 아들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은혜를 베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던 대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확신을 함께 나누었다.

"우리는 일어난 모든 일들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어머니는 한없는 승리와 기쁨에 도취하셨습니니다. 그때 어머니는 주님을 찬양했

따라, 부모에게 효도하며 아내의 도리를 다한 것이다. 나아가서 아들을 위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어머니의 죽음은 형용할 길이 없이 큰 충격이었다. 그는 모니카의 눈을 감겨드렸다. 그와 주위에 있는 가족이 큰 슬픔에 잠겨 함께 대성통곡을 하였다. 어거스틴은 어머니의 장례식이 슬픔 속에 진행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신을 차리려했다. 그래도 어머니의 기도와 인내로서 하나님을 찾았기에 앞으로 효도하며 사랑의 빛을 감으려하니, 훌쩍 곁을 떠나버리겠다는 생각에 마음이 심히 아팠다. 어거스틴은 사람들 앞에서 눈물을 참았다. 마음 깊은 곳에서는 슬픔의 파도가 심하게 치고 있지만, 애써 참고 또 참았다. 어머니의 영혼이 하나님께 향하여 갔음을 확신하는 모습을 보이려한 것이다.

장례식을 마치고 홀로 있는 시간에 어거스틴은 과거 어머니와의 추억을 되새겼다. 이때 지금까지 참았던 눈물과 통곡이 쏟아졌다. 더 이상 억누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은 더 이상 아픔과 괴로움 때문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이었다.

"주님! 이 책을 기록하면서 주님께 고백합니다. 어머니는 평생 동안 부족한 자식을 위해 우셨는데 나는 이제 겨우 어머니를 위해 한 시간 남짓 울었습니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 일로 인하여 나를 조롱하지 않게 하소서. 오히려 그들 마음속에 사람이 있다면 이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되도록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 당신에게 지은 죄를 인하여서 슬퍼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참회록, 9.12).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참회록"을 읽는 모든 독자들이 모니카의 삶을 기억하기를 원했다. 모니카의 경건한 삶과 눈물의 기도는 어거스틴의 마음을 떠나지 않았다. 이와 동시에 그는 어머니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녀의 길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항상 기억할 수밖에 없었다. 모니카의 기도는 죽음 후에도 계속 열매를 맺었던 것이다.

covenantcho@yahoo.com

어머니 모니카, 어떤 환경에도 흔들림 없는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앙 보여 참회록에서 경건한 사랑 표현...모니카의 기도는 죽음 후에도 계속 열매 맺어

어머니의 가슴 속에 이미 거룩한 성직은 예비하였고 친히 임재하시기 위해 성소의 기초석을 놓으셨습니니다. 물론 아버지도 예비신자였지만 그것은 아주 최근의 일입니다. 독실한 신앙인인 어머니는 내가 죄악의 길에서 방황할까 하여 염려하고 있었습니니다"(참회록, 2.3). 어거스틴은 어려서 세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아들이 즉시 죽을 수도 있다는 모니카의 불안감 때문이었다. 서둘러서 세례식을 베풀려하였지만 병에 들어 그 기회를 놓쳤다. 어거스틴은 자신이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은 훗날 많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문을 열어준 셈이지만 세상적인 삶을 통해서 결국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으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 어머니의 기도

어거스틴의 학창 시절을 '학교공부 잘 할 하는 불량소년'이라고 표현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는 남다른 학문성을 지녔던 학생이었다. 그 당시 고등학문을 습득하는 능력이 대단히 뛰어났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이 세상의 것에 심취되

권에 적힌 기도문을 소개한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이시여! 나를 위해 펼쳐 주신 당신의 손은 이 깊은 흑암으로부터 나를 건져 주셨습니니다. 이는 나의 어머니가 무릎 꿇고 눈물로 당신께 기도드린 까닭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여종인 나의 어머니는,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 우는 것보다도 살아있는 나를 위해서 더 울었습니다. 이는 어머니께서 당신을 통하여 얻은 신앙과 영적 능력으로 나의 영적 죽음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기도하던 곳은 눈물로 바닥이 흥건히 젖곤 하였습니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위해 흘린 눈물의 기도를 들어 주셨고 그 눈물을 떨하지 않으셨습니니다"(참회록, 3.19).

모니카는 세상의 눈에 빠져 들어가는 아들을 쉽게 포기하지 않았다. 언제나 눈물로 기도를 올렸을 뿐 아니라 어거스틴이 30세가 되던 해에 그를 찾아 밀라노를 방문하였다. 아프리카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오면서 풍랑을 만나 많은 고생을 감수한 것이다. 그녀의 마음에는 어둠속에서 절망과 고통 속에 있는 아들을 건져내

3.19). 그는 어머니께서 자신을 방문하는 중에도 자신을 덮고 있던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도록 밤을 새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모습을 보았다. 그녀의 모습이 보인 것은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하소연이 아니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혼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확신이었다.

■ 하나님의 은혜

결국 어거스틴이 영적 방황을 끝내고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 순간 그는 변한 가슴을 못이기도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올렸다. "내 영혼 깊숙이 숨겨져 있는 인생의 비참함이 그대로 내 눈앞에 드러났고 강한 폭풍이 내 영혼을 흔들더니 내 눈에서는 눈물이 폭우처럼 쏟아지지 시작했습니다"(참회록, 8.12).

어거스틴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었을까? 어거스틴은 자신이 이때 어떤 내용의 기도를 드렸는지 자세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지은 죄의 무게가 자신에게 심한 괴로움과 고통을 주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애타게 절규하는

습니니다. 당신은 그의 눈물의 기도와 탄식의 간구를 들으시고 이 축복을 나에게 보아도 그에게 더욱 베풀었습니다"(참회록, 8.30).

그는 자신의 회심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가능하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으며 어머니와 함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렸다.

모니카는 어거스틴이 33세가 되던 해에 56세를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참회록" 제 9권에 어머니의 죽음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먼저 이곳에 자신의 삶의 결정적인 영향력을 끼친 어머니의 삶을 회상하는 글을 담았다. 모니카는 신앙은 물론 인격적으로 훌륭한 어머니였다. 아버지에게 언제나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태도를 보인 그녀는,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의 영혼이 구원받게 하였다. 이웃과 친척을 항상 부드럽고 겸손한 자세로 대하였으며,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과 행동을 하려고 노력하였다. 회심한 후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녀의 삶을 지배한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가정의 원리였다. 하나님의 명령을

그랜드캐년이 노아홍수에 의해 형성됐다고 보는 이유 (2)



박창성 박사
세계창조선교회 회장

(2) 그랜드캐년이 형성되기 이전에 대규모의 침식이 있었다

그랜드캐년 자체를 만든 침식작용도 엄청나게 큰 규모이지만, 그랜드캐년 지역에서 일어난 침식은 그것만이 아니다. 현재의 그랜드캐년에서 관찰할 수 있는 지층위로 최대 3,000m 두께의 지층들이 쌓여져 있었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대부분 침식되어 사라져 버렸다.

이와 같은 대규모의 침식이 일어난 콜로라도 고원(면적 50만 km2)은 톱산맥과 주위의 고지대로 둘러싸여진 곳으로, 대한민국 면적의 5배 이상 되는 광활한 땅이다. 이곳에서 침식되어 없어진 물질의 양(부피 40만km3)은 그랜드캐년 자체에서 침식된 양의 100배나 된다.

콜로라도 고원에는 대규모의 침식을 견디고 남은 일부 지층들이 계단, 기동 또는 뿔뿔이 평평한 탁자모양으로 현재 남아있어서, 과거에 넓게 쌓여 있었던 지층들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그 많은 양의 물질들은 무엇에 의해서 침

식되었을까? 과연 오랜 세월 동안 빗물과 하천이 흐르면 그렇게 거대하고 평탄한 지형을 만들며 침식할 수 있을까? 빗물, 하천은 물론이고 바람이나 빙하, 어느 것으로도 그렇게 큰 규모의 침식을 평탄하게 일으킬 수는 없다.

그렇다면 바닷물이 넘쳐서 대륙을 덮는 홍수가 일어나 퇴적물이 쌓인 후, 다시 바다로 후퇴하는 과정에서 침식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비가 많이 와서 강물이 넘치는 홍수가 아니라, 해일과 같이 대륙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는 대홍수라야 그 정도 규모의 침식을 일으키며, 평탄한 표면을(planation surface)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종합해보면, 그랜드캐년 지역에서 일어난 침식작용은 규모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대륙 전체를 덮은 홍수물이 바다로 후퇴하면서, 콜롬비아 고원에 두껍게 쌓여있던 지층들이 대규모로 침식당하여, 전반적으로 평탄한 지형이 형성되었다

(sheeted flood - 그랜드캐년 위로 쌓여있던 콜롬비아 고원의 지층을 침식).

■둘째, 홍수 물의 수위가 낮아지면서 일부 높은 육지들이 수면위로 드러나고, 콜로라도 고원에 갇혀있던 엄청난 양의 홍수 물(inland sea)이 거대한 물줄기를 이루어 낮은 곳을 찾아 빠른 속도로 흘러가면서 광대한 계곡, 그랜드캐년을 만들었다(channelized flood-그랜드캐년 Section A 침식).

■셋째, 홍수가 끝나고 물이 모두 빠져나간 후, 그랜드캐년 안에 빗물이 모여 작은 콜로라도 강을 이루고, 평탄한 지표면을 천천히 구불구불 흘러가는 사행천이 되어 작은 계곡을 만들었다(meandering underfit river-그랜드캐년 Section B 침식).

Figure 5. 그랜드캐년을 서쪽 하늘에서 비스듬히 내려다 본 사진. 광대한 그랜드캐년 계곡 안에 실처럼 가느다란 콜로라도 강이 구불구불 흘러가는 사행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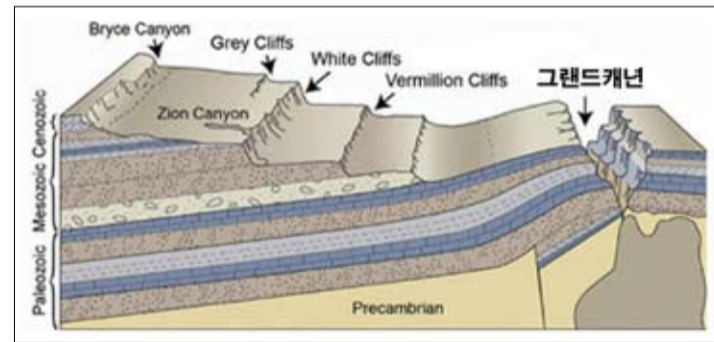


Figure 3. 그랜드캐년 일대의 지층을 남북 방향으로 자른 단면도(왼쪽)와 콜로라도 고원의 지도(오른쪽). 현재의 그랜드캐년에서 볼 수 있는 지층 위로 수천 미터 두껍게 쌓여있던 지층들이 침식당해 없어진 것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대규모의 침식이 일어난 콜로라도 고원(지도의 노란색 부분)은 그랜드캐년을 포함한 콜로라도 강의 유역으로서, 주위의 고지대로 둘러싸여 있으며, 대한민국 면적의 5배 이상 되는 광활하고 평탄한 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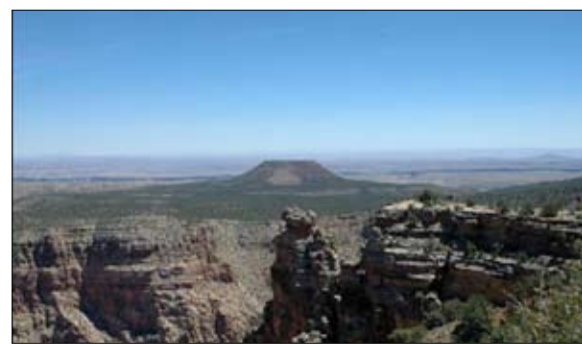


Figure 4. 그랜드캐년 부근에 있는 Cedar Mountain(왼쪽)과 Monument Valley(오른쪽). 그랜드캐년을 비롯한 콜로라도 고원 일대에 두껍게 쌓여져 있었던 지층들이 평탄하게 침식당하고, 일부 지층만 남겨진 모습을 볼 수 있다.

(meander)의 모습을 보여주었고 있다. 사행천은 평지를 천천히 흘러갈 때 나타나는 하천의 형태이다. 콜로라도 강은 대홍수가 끝나고 이미 넓은 폭으로 형성된 그랜드캐년 안에서 흐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천천히 흘러가면서 사행천을 이루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과거에 바닷물이 대륙을 휩쓸는 전 지구적 대홍수가 일어났고, 그 결과로 그랜드캐년의 전체적인 모습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 대홍수가

바로 성경에 역사적 사실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노아의 홍수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지금도 풍화작용과 빗물, 콜로라도 강에 의한 침식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랜드캐년 형성에 있어서 극히 부본적인 역할을 했을 뿐이다.

(참고) 노아의 홍수와 화산 활동, 강우

노아의 홍수가 일어날 때에는 땅이 갈라지는 격변적인 지각변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다 속에서

흘러나온 용암에 의해서 바닷물이 뜨거워지게 되고, 수증기를 대기중으로 계속 공급하여 많은 비가 내리게 된다. 그래서 홍수가 끝난 후에도 오랫동안 지금보다 훨씬 많은 양의 비가 내릴 수 있다. 그로 인해, 콜로라도 강이 이미 넓게 형성된 그랜드캐년을 흐르면서 더욱 깊이 침식시켜, 수직에 가까운 계곡(Section B)을 만들었을 것이다.

park@wcmweb.org

리더십 코멘터리 (29)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Turning Point

10년을 내다보고 리더에 집중하라

라이프지가 지난 1천년간 발생한 100대 사건을 선정해 리스트를 발표했다. 1위는 요하네스 구텐베르크의 활판인쇄 발명, 2위와 3위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의 신대륙발견과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이었다. 리스트 가운데는 코카콜라도 포함되어 있었다. 코카콜라는 코카콜라니제이션(Cocacolonization, 콜라를 통한 세계화)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단순한 청량음료가 아니라 미국 문화의 상징이자 이미지이다. 세계에서 가장 널리 퍼진 영어 단어가 '코크(Coke, 코카콜라의 별칭), 코카콜라이다. 코카콜라는 유엔회원국 수보다 더 많은 195개국에서 생산되며, 세계 청량음료시장의 45%를 차지한다. 그런데 코카콜라가 이렇게 유명한 회사가 되는 데는 어떤 전환점이 있었다.

코카콜라의 창업자인 아사 G 캔들러는 알코올을 증독자였다. 그는 항상 술에 취해 있었고 의지력이 약해 주위 사람들에게 몇 번이나 금주 선언을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에 취해 귀가하던 그는 벼락같은 마음의 음성을 들었다. "자신의 본능적 요구를 거절하는 사람이 성공한다." 캔들러는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아내는 바로 그 시간에 남편의 금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이 부부는 서로 손을 잡고 눈물의 기도를 드렸다. 캔들러는 아내의 기도를 통해 영혼의 안식을 얻었고 알코올의 유혹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기도의 능력으로 술을 끊은 것이다. 캔들러는 그때부터 수입의 10%를 절저히 헌금했으며 그 이후 코카콜라는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인생의 전환점이 있고 전환점을 통하여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다. 변화와 성장을 위해 기업과 교회에서는 10년을 내다보고 리더에 집중해야 한다.

생각과 방식의 전환점이 중요하다

모든 전환은 생각의 변화로부터 시작된다. 생각이 변해야 말도 변하고 행동도, 습관도, 삶도 변한다. 생각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는 본질적인 인생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비스마르크와 친구가 사냥을 갔는데 친구가 그만 눈에 빠져 버리고 말았다. 비스마르크는 사냥총을 친구의 머리통을 향하여 겨누었다. 친구는 놀라서 허우적거리며 필사적으로 살기를 원했다. 그 때 비스마르크는 총을 친구에게 잡을 수 있도록 내밀며 "내 총구가 너의 머리통을 겨누는 것이 아니라 네 생각을 겨누었

생각과 방식의 전환점이 중요... 변화의 필요 알리고 유익을 강조하라 모든 사람 만족시키는 변화는 없어... 변화의 단계 제시하고 시작해야

다"고 말했다. 생각의 전환이 중요하다. 기업과 교회의 리더여, 지금 당신의 안된다는 생각, 불가능하다는 생각, 부족하다는 생각, 별수 없다는 생각, 부정적이고 소극적이고 폐쇄적인 생각을 버려라.

자산규모가 1천5백억 달러, 상표가치는 4백억 달러로 세계 최강의 브랜드로 평가받고 있는 코카콜라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코카콜라는 99% 이상이 설발물이며, 나머지 1% 미만이 코카콜라 원액 7X이다. 7X의 성분은 극미 중 극미로 되어 있고 7X는 미국 내 16개 공장에서 서만 생산하며,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코카콜라 공장들은 이들로부터 원액을 공급받아 설발물과 섞어 병에 담은 보틀러(Bottler) 역할만 한다. 아주 작은 1%가 99%를 지배한 것이다. 기업과 교회의 리더여, 잘 조직된 소수가 조직되지 못한 다수를 지배하는 원리를 깨달으라.

변화에 둔감한 강요형 리더는 실패 '순위'

성공하는 리더와 실패하는 리더의 차이는 작은 행동 하나에서 시작된다. 실패하는 리더의 행동 특성을

분석해 보자.

▲'시키는 대로 해라'식의 리더: 구성원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이를 무시하고 '시키는 대로나 해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구성원이 의견을 제시하면 권위를 내세워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키려 한다. 반발하는 사람들을 설득하지 않고 동조하는 사람들만을 중심으로 일을 추진하고 구성원들의 업무 스타일을 인정하기보다 자신의 스타일에 맞추도록 강요한다. 당신은 능력 받은 총이라고 자기주장만 내세우는 리더는 아닌지?

▲변화에 둔감한 리더: 기존의 업무 체제를 고집할 뿐 구성원들의 요구를 무시하거나 조직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성공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려는 특성을 가진다. 업무 수행에 차질이 생길 것을 우려해 새로운 시도를 꺼리거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새로운 시도보다 현상 유지에 더 중점을 둔다. 당신은 교회 전통만을 고집하는 리더는 아닌지?

▲개인의 희생을 강요하는 리더: 구성원들이 잠시 여유를 갖는 모습을 보면 불안해하고 실적을 위해 과도한 개인의 희생을 요구한다. 개인의 자질과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조직 상황에 따라 업무부담을 준다. 단기간의 업무 장애를 우려해 구성원

태도를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고, 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만 그가 이루어야 할 변화에 성공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변화를 시도하려는 리더들이 취해야 할 행동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필요를 알리라: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들이 갖고 있던 삶의 패턴이나 조직의 문화를 계속 유지하려는 습성을 갖고 있다. 그런데 어떤 패턴이나 문화가 고착화되면, 그것의 치명적인 약점을 보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인데, 사람들에게 변화가 왜 필요한가를 알림으로서 그 약점을 극복하도록 이끄는 것이 바로 리더의 역할이다.

▲변화가 주는 유익을 강조하라: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그 변화 때문에 자신들이 잃게 될 것을 생각하게 된다.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 손익계산을 하다보면, 자칫 진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할 수 있다. 따라서 리더는 변화가 가져다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강조할 필요가 있다.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는 변화는 없다는 것을 알리라: 조직원 모두가 만족할만한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어쩌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 보일

들의 직무 순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회사에 대한 충성심을 강조해 구성원들의 개인 생활을 배려하지 않는다. 당신은 성도들의 가정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교회 봉사를 강요하는 리더는 아닌지?

▲등잔 밑이 어두운 리더: 결정이나 지시를 내려놓고 실제로 실행이 되는지 확인하지 않거나 평소 현장에 대한 관심이 부족해 관련 업무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신뢰하는 측근의 보고는 사실 여부 확인을 하지 않는다.

가을은 변화를 주도할 텃밭 포인트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조직 안에서 변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은 16%에 불과하며, 반대로 변화에 대해 저항적인 세력도 16%에 이른다고 한다. 따라서 어떤 조직에서 변화를 시도할 경우, 그 시도가 성공할 수 있는 경우는 변화에 대해 적극적인 수용의사를 밝히는 사람들이 그 조직을 장악하는 경우가거나 아니면 68%의 침묵하는 다수들이 변화를 추구할 경우이다. 따라서 리더는 사람들이 변화에 대해 갖는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변화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을 다 만족시키는 변화는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변화의 단계를 제시하라: 변화의 단계를 제시하고 그것을 이뤄가게 되면 사람들로 하여금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변화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를 갖게 만든다.

▲시작하라: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 사람들에게 알렸으면 이제 변화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문제에 대해서 생각만 하고 행동을 개시하지 않으면 그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행동이 필요하다.

리더여, 이 가을은 당신의 조직에 변화가 필요한 텃밭 포인트이다. 이제 변화의 발걸음을 내딛으라. 그리고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필요한 행동들을 시작하라.

sondongwon@gmail.com

영성칼럼

이희영 사모
(프린스턴한인교회)

탐욕의 희생물 사울

비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식의 왕을 구했어도 일단 허락하시었기에 저들이 구하는 왕제도가 굴러가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외모는 멀쩡한데 속은 빈 강저 같은 매사에 자신이 없는 사울을 첫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자신이 없는 무명인 사울이 승리로써 사무엘이 결서서 도와 힘을 주고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주십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섬기는 초심이 그대로 계속되었다면 저는 얼마나 귀한 선왕이 되고 주신 권세를 마음껏 누렸겠으나,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범사에 주님을 소중히 여기고 겸손한 왕으로 계속 행보를 유지했다면 평생이 복으로 넘쳤겠는데, 올라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려오실 수 그 자리를 유지함이 더 중요한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잊고 유급한 상황만을 모면해 보려는 궁여지책만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의 머리 속엔 변제의 단추를 누르면 원하는 승리의 풀라가 굴러 나올 줄 아는 철저한 이상 승배 기복 신앙입니다.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습니다. "반제 드렸으니 고기잡으시고 승리를 내놓으셔야죠." 사울의 마음이니 사무엘을 기다릴 시간도 필요요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빨리 반제만 드리면 만사 오케이여 여깁니다. 왕 자리가 청지기가 아닌 자신의 일이 된 사울에게 사무엘의 책망만 하고 황하니 가버린 행동은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청천벽력입니다.

사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일로 그분의 방법대로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사명이 하나님의 일이 아닌 내 일로 변질되면 외적으로 보이는 충성은 같아 보여도... 하나님 방식이 아닌 최대로 내 방식으로 성취하려하기에 하나님은 구경하고 계십니다. 제 못대로 일이 풀려줄 리가 없으니, 너무도 죽을 맞습니다. 점점 왕된 자기 권위를 세우는데 신경이 몰려 있고 백성의 형편 따위는 안중에 없애지니 판단이 흐려집니다.

권세라는 것이 양심도 자존심도 팔아먹을 만큼 그토록 매력에 있는지 끊임없이 자신의 왕 자리를 지키기에 전진공금 수단 방법을 다하는 사울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왕위도 길지 못할 것이라 경고하시며 기회를 줄수록 더 하나님이 마음 아프실 일만 열심을 내는 사울입니다. 권력의 중독에 빠져 목숨 걸고 집착하는데 하나님이 당연 관심 밖입니다. 정말로 미련함을 어느 누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야멜렉을 친 노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야멜렉을 친 노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야멜렉을 친 노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야멜렉을 친 노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야멜렉을 친 노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어디 사울뿐이요 우리 모두 내면에 내재하는 사울이 있기에 마음이 꿀꿀 씁쓸합니다. 앞장 선 리더십이 사울같이 파워 중독이면 그 밑에 있는 이들의 삶이 고달프고 불쌍하기 짝이 없습니다. 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초심을 잃고 사울과 같이 내 사역으로 변형해 성도들을 자신의 존재를 위한 도구로 이용함에 무감각합니다. 주님께서 몸된 교회에 진정공의와 거룩함으로 왕으로 모시는 주님 마음에 합한 사역자 다윗을 많이 일으켜 주시길 눈물로 기도합니다.

heenlee55@hanmail.net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한인교회</p> <p>담임목사 : 김영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찬양대: 오전 7:30 금요찬양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양예배: 오전 9:30, 11:30</p> <p>www.thanksgivingchurch.com Tel: (714)521-098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p> <p>담임목사 :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찬양대: 오전 7:30(영성) 주일영양예배: 오전 11:30 수-금요일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lalgcusa@yahoo.com / www.lalgc.com Tel: (323)913-449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나성영광교회</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0 찬양대: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후 7:30 주일 6부예배: 오후 2:30(천년)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시(토)</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ng.com</p>	<p>나성제일교회</p> <p>담임목사 : 김문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영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시(토)</p> <p>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p>나침반교회</p> <p>담임목사 : 민경엽</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11:00 토요일: 오전 6:30 EM: 대담부: 오후 11:30 주일학교: 오전 11:00</p> <p>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p>		
<p>남가주든든교회</p> <p>담임목사 : 김현인</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드림)예배: 오후 12:30 EM: 청년예배: 오전 10:30 주일 학교: 오전 10:30 금요찬양대: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p> <p>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facebook.com/srscsa</p>	<p>남가주사랑의교회</p> <p>담임목사 : 노창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20 찬양대: 오전 11:20 영양예배: 오후 7:30 1부: 오전 9:20 2부: 오전 11:2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흥장로교회</p> <p>담임목사 : 권영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양예배: 오전 9: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일 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N.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kpc.org</p>	<p>등문교회</p> <p>담임목사 : 김광삼</p> <p>주일예배: 오전 10: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주일학교: 오전 6:30(토) 주일영양예배: 오전 10:00 금요찬양대: 오후 7:45</p> <p>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egkpc.org</p>	<p>디아스포라선교회</p>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p> <p>대표: 전영자 목사</p> <p>"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포를 위해 일하는 선교회"</p> <p>목요일: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p> <p>Tel: (213)559-7728 (전화 행사 겸용), Tel: (213)210-8990 1213 Gabriel Garcia Sanchez St., #B, L.A., CA 90033</p>	<p>미주양곡교회</p> <p>담임목사 :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로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일: 오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대일)</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p> <p>담임목사 :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주일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토-일): 오전 6:00</p> <p>www.mpca.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빛과 소금의 교회</p> <p>담임목사 : 이정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일: 오후 8:00 주일 학교: 오전 5:45(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p> <p>Tel: (310)749-4756 21519 S. Menlo Ave Torrance CA 90502</p>	<p>베델한인교회</p> <p>담임목사 : 김한효</p> <p>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성인영양예배: 오후 11:00(청년) 대학영양예배: 오후 1:00 영양예배: 오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p>	<p>복음장로교회</p> <p>담임목사 : 김상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양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일예배: 오후 7:30</p> <p>Tel: (562)62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p>	<p>세계소망교회</p> <p>담임목사 :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양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Tel: (213)745-9191(CH), 새벽 (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요셉선교회</p> <p>담임목사 : 정상호</p> <p>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7:30 금요일 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p> <p>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1400 Alvarado Terrace L.A., CA 90006</p>	<p>엘버린침례교회</p> <p>담임목사 : 박경호</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주일 학교: 오전 5:40(월-토) 수요일예배: 오전 6:00(토) 수요일찬양대: 오후 7:30</p> <p>www.irvinechurch.com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p>월서크리스천교회</p> <p>담임목사 : 엄규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천년)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다민족찬양) 새벽기도회: 오후 5:40(월-토) 주일 학교: 오전 11:00 토요일영양예배: 오후 6:00</p> <p>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1N, L.A., CA 90010</p>
<p>은혜한인교회</p> <p>담임목사 :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영양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p> <p>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세계교회</p> <p>담임목사 :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천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성경대명회: 오후 7:20(금)</p> <p>Tel: (310)325-4020, Fax: (310)325-4025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www.junimchurch.com</p>	<p>주님의영광교회</p> <p>담임목사 :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cj.org</p>	<p>중은마을교회</p> <p>담임목사 : 신원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일예배: 오후 7:30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토) 수요일예배: 오후 6:00(토)</p> <p>www.socalsamsunghurch.org Tel: (714)646-9259 Fax: (714)646-9264 16800 Imperial Hwy., Yorba Linda CA 92886</p>	<p>코너스톤 교회</p> <p>담임목사 :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수요일 예배: 오후 7:30 수요일예배: 오후 8: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cornersstone.org / e-mail: pastor@icornersstone.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p> <p>담임목사 : 김바울</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양, 찬양)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 5부예배: 오후 3:00(영양) 영양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p> <p>www.torranceccc.org Tel: 310-370-5500 /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p>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들 찾습니다</p> <p>■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 N.Y.: Tel: (718)986-4400 Fax: (718)986-0074</p>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p>



교토소 선교칼럼 (8)

교토소 교목, TPPM대표 이영희 목사

사랑의 하나님-진정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제가 알고 있는 다른 교도소의 체플린 목사님이 제게 긴급한 상황이라며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분이 아는 한 여자의 아들 크리스가 제가 사역하고 있는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그가 가족들에게 교도소에서 자살하겠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일단 교도관들에게 그 사실을 알렸으며 정신과에서는 그가 자살 방지 구역에서 보호를 받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던 얼마 후 크리스가 교도소 목사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방문했을 때 그는 저에게 성경에 직접적인 답이 없는 엉뚱한 질문들을 할 뿐이었습니...

고 제가 한 짓과 그것에 대해 사죄한다는 유언장을 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을 무엇으로 마무리할까 고민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제가 죽었던 그 친구의 영이었습니...

고 제가 한 짓과 그것에 대해 사죄한다는 유언장을 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을 무엇으로 마무리할까 고민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제가 죽었던 그 친구의 영이었습니...

고 제가 한 짓과 그것에 대해 사죄한다는 유언장을 썼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문장을 무엇으로 마무리할까 고민하던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한 사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바로 제가 죽었던 그 친구의 영이었습니...

약 한달 후 평소와 같이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제게 특별히 전할 말씀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때에는 하나님께서 재조사 중 설교할 사람이 있다고 하시는 것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저는 예배에 참석한 재조사자들 중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때 설교하라고 한 사람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크리스가 기다렸다는 듯이 벌떡 일어나더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 명쾌한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크리스가 쓴 간증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대하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2회 선교중국 2030 선교대회 (상)

(2016년 9월 27-30일 제주도에서)



노봉린 박사 AGST-Pacific 신학대학원 원장 ATA International Senior Advisor

우리는 현재 세계선교의 놀라운 시대에 살고 있다. 중국에서 사역하고 있는 한 선교사는 말하기를 “나는 이곳에서 아무 희생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하나님이 중국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선교운동을 하고 있는 것을 직접 관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선교운동이 실제로 두 번의 “선교중국 2030 선교대회”를 통하여 나타났다. 제 1회 “선교중국 2030 선교대회”는 2015년 5월에 홍콩에서 1,000명의 중국의 가정교회 교인들로 거행되었고 제2회 “선교중국 2030 선교대회”는 2016년 9월에 제주도에서 1,200명의 중국 가정교회 교인들이 참석하여 대대적으로 거행되었다.

중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는 그 서양선교사들의 빛을 갈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필자는 2015년 제 1회 “선교중국 2030 선교대회” 때 강조하기를 약 1000만의 기독교인을 갖고 있는 한국교회에서 27,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오늘날의 중국교회는 개신교인 8000만명, 천주교인 2300만명 합하여 1억이 넘는 교인을 갖고 있는 중국교회에서 한국교회의 비율로 따져서 20,000명의 중국선교사보다 10배가 되는 200,0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니 그때 모였던 중국기독교인들이 열열히 박수로 반응하였다.

인간이 만든 또 다른 재앙, “헌옷”

(2면에서 계속)

흡에서 자라난 식물이 다시 흡으로 돌아가고, 그곳에서 또 다른 식물이 자라나는 생명의 사이클은 뭐 하나 낭비가 없는 과정이다. 이런 100% 재활용 기술이 패션에서도 현실화될 수 있다면 의류공장이나 매장, 옷장, 중고매장, 섬유 재활용 업체를 거쳐 다시 섬유 제조공장으로 향하는 순환이 끊이지 반복될 수 있다. 폴리에스테르 실을 만들고, 이를 섬유로 직조하고 옷으로 만들었다가 다시 순수 폴리에스테르로 분해해 섬유로 직조하는 완벽한 재활용이다. 이런 원리는 천연섬유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그러나 상업적으로 확대 가능한 100% 섬유 재활용 기술은 현실이 될 때까지 최소 5-10년이 남았다. 2014년 지속가능하의류연합이 의뢰한 보고서를 보면 천연 면소재의 의복으로 만들고 분해해서 다시 새 의복에 사용하는 100% 재사용 기술은 이미 존재한다. 그러나 면을 염색 또는 화학 처리하거나 다른 소재와 혼합하면 재활용 작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 폴리에스테르와 천연섬유 혼방 의류도 있다. 인기가 많은 소재지만 현재는 100% 재활용 기술이 존재하지 않는다. 폴리에스테르 섬유 생산은 1980년 580만에서 1997년

3400만으로 급증하고 2015년에는 1억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까지는 쏟아지는 의류 생산을 감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H&M은 이를 알고 있다. 컨서스 자선재단을 통해 섬유 재활용 기술을 개발 중인 ‘혁신팀’ 5개에 110만 달러를 쾌척한 것도 이 때문이다. 낡은 면 의복을 면 소재로 분해해 다시 새 섬유로 방적하는 과정을 개발하는 팀도 있고, 폴리에스테르를 분해 및 소화하는 미생물을 연구하는 팀도 있다. 천연섬유와 폴리에스테르 혼방 섬유를 기본 소재로 분해해서 폴리에스테르 제조업체에 판매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공정들은 순수 면과 합성섬유, 혼방섬유를 손쉽게 구분하는 기술

과 난관히 개발돼야 한다. 바깥은 면, 안쪽은 폴리에스테르로 된 재킷을 알아보는 기술 또한 필요하기 때문이다. “약 1088만6220의 의복 폐기물을 매립지에서 끌어내 수작업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고 중고의류 수거업체 I:CO의 제니퍼 길버트가 말했다. 이들 패스트패션 브랜드는 시급하게 100% 재활용 기술 개발에 나서려는 중이다. 그야래 기존 섬유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새 시장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중고의류 시장은 크게 침체했고, 그 결과 전체 시장체계가 붕괴 직전에 몰렸다. 지금 우리는 낡은 옷을 한데 모아 섬유 재활용업체에 넘기는 방식을 사용한다. 그럼 옷의 가치는 더 이

상 브랜드나 품질, 유행 여부로 결정되지 않고 글로벌 공급과 수요의 원칙에 따라 파운드별 가격이 결정되는 1차 상품이 된다. 지난 18개월 간 중고의류의 상품 가격은 파운드 당 몇 센트로 급락했다. 달러 강세와 (중고의류의 상당 비중이 처리되는) 중동의 지정학적 불안이 가져온 수요 약화, 동유럽 국가의 경기 상승, 동아프리카 최대 중고의류 시장의 화재가 가격을 더욱 하락시켰다. 가격 하락에는 다른 원인이 있다. 저품질의 중고의류 공급이 꾸준히 늘어난 게 그중 하나다. “중고의류 산업은 미국과 영국, 그리고 세계적으로 매우 힘든 시기”라고 영국 섬유재활용협회의 알란 윌러 이사장이 지난 4월 소싱저널과 진행된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러나 의복 가격이 과거보다 크게 낮아지면서 새 옷에 대한 수요는 증가한다. 중고의류 가격에 대한 하부구조로부터의 압력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재활용업체에게 금전적 혜택이 거의 없어 2000년대 후반 경기대침체 이후 수년간 꾸준히 상승하던 헌옷 수거율은 지난 1년간 4%나 감소했다. 의복의 품질이 계속 하락하면 세계시장의 수요 또한 하락을 거듭할 것이다. 100% 재활용 기술이 성공적으로 상용화되지 못하면 중고의류 산업은 위기를 맞이할 지도 모른다. 그럼 우리가 버리는 저렴하고 낡은 헌 옷을 받아줄 곳은 자취를 감춰버리고 말 것이다. rohonolulu@gmail.com

